People&company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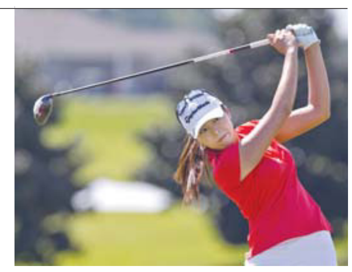


광주U대회 사무총장 인터뷰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23일 화요일 제3060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허미정 LPGA 정상 기쁨



**공무원연금 개혁과 거센 저항** 공무원노조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 회의 시작전부터 연금개혁방향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의 거센 항의로 공청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 위기의 삼성전자 돌파구 있나

## 美·中 협공으로 3분기 영업이익 5조원 밑돌 듯
## 싼 갤럭시노트4, 시스템LSI 정비 등 대책 부심

한국 IT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중국과 미국 IT 기업의 협공으로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위기를 맞을 경우 최근 부진을 털고 살아나고 있는 LG전자 역시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어닝쇼크'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 심각한 위기설마저 퍼지고 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년만에 처음으로 7조원 대로 낮아진 데 이어 3분기에는 확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가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이달 초 6조원 밑으로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아예 5조원 선마저 무너졌다. 황민성·허윤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22일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4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들이 이달 초 예상했던 5조7000억원에서 20여일 만에 1조원이나 삭감된 수치다. 휴대전화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시스템LSI 사업부의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비용 절감 대책 등으로 내부 단속**

내부의 위기의식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은 이미 올해 초부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우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격주로 확인하고 있다. 이 대책에는 ▲확판 ▲증산 ▲투자절감 ▲재료비와 생산성 경비 절감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사업부도 임직원의 해외 출장비를 삭감하고 성과급을 자진 반납하는 등의 비용 절감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다.

또 이달 초에는 무선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임직원 500여 명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다른 사업부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력 추가 이동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실적 개선 어려워**

삼성전자는 시장에서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의 출시일을 앞당기고 낮은 가격에 예약 판매를 하는 것도 시장 장악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원래 10월 초 출시 예정이었지만 애플의 '아이폰6'가 돌풍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출시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역시 대폭 낮췄다. 갤럭시 노트4의 예약판매가는 전작 노트3보다 11만원이나 낮으며 시리즈 중에서도 최저가다.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반도체부문 시스템LSI사업부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만회를 노리고 있다. 이 사업부는 그 동안 생산하던 스마트폰용 칩 등에서 벗어나 업계 최초의 2800만 화소 APS-C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발표하며 카메라 센서 시장까지 진출했다.

그럼에도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영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고가 단말기는 애플 때문에, 중저가 단말기는 중국 업체 때문에 경쟁이 격화돼 마케팅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수익성이 시장 예상보다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OLED 등도 수익성이 함께 나빠지고 있어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 내일까지 최고 200㎜ 비

### 태풍 '풍웡' 한반도 북상중

제16호 태풍 '풍웡'이 북상함에 따라 23~24일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풍웡은 이날 오전 9시 중심기압 990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24m/s의 소형 태풍으로 세력이 다소 약화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대만 북쪽 해상에서 중국 연안을 향해 시속 26㎞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23일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충청이남,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24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태풍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 이상, 제주도 산간에는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축대붕괴,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의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해상에서도 서해상과 남해상은 24일까지, 동해상은 24~25일 강풍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윤다혜기자 ydh@



**여야 대표 첫 만남 가졌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2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회동했으며 기대를 모았던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전 교육문화수석>

# 송광용, 내정 전 경찰소환

##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청와대 검증 또 도마에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사진)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수석은 내정 발표 사흘 전인 6월9일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청와대의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사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캐나다 총독과 환담하는 박 대통령**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총독 관저에서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파트 분양, 내년은 없다?

**기자 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가을 분양시장이 뜨겁다. 연휴 직후 불과 2주 사이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단지가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앞으로 10월까지 공급될 물량만도 9만7401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물량 폭탄은 정부가 공급시기 조절을 위해 후분양을 고려하고 더 이상의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힐 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물론 부동산시장 침체로 최근 몇 년간 주택사업은 포기하다시피 했던 건설사다. 때문에 최근의 좋은 분위기를 틈타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밀어내려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지금의 분양시장 회복세가 지난 2009년과 닮아 있다는 데 있다. 당시 MB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 유동성을 확대했고, 지방 미분양에 대해 LTV도 완화했다. 또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을 감면하고, 전매제한도 단축했다.

덕분에 2008년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됐던 분양시장은 2009년 재도약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 당시 대대적으로 공급됐던 곳이 청라·영종·별내 등은 초기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지만 입주 시점 분양가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 마냥 공급을 늘리다가는 이들 아파트가 입주하는 2016년 이후 다시 한 번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혹자는 요즘 건설사들이 마치 내년은 없다는 듯이 올해 다 쏟아내는 것 같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년은 분명 존재한다. 신중하게 판단한 뒤 분양 시기를 정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 ‘소란·욕설 얼룩’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 노조 저지로 회의 무산

국회에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2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연금개혁 해체"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워 결국 토론회 취소를 선언했다.

노조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회의장 앞쪽 좌석을 차지하고 구호를 복창했으며 일부 노조원들은 욕설을 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김무성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도 외쳤다. 또 "국민의 노후를 팔아 먹는 연금 개악을 반대한다. 공무원을 우습게 아는 새누리당은 물러가라"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인 토론회"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연금학회는 21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재직공무원들의 연금 급여율(수령액)을 34%로 인하하고 매달 내야하는 부담률(부담금)을 43% 가량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 野, 당직 대부분 유임… 비서실장에 박홍근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조정식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를 대부분 유임하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에 박홍근 의원을 임명했다.

조 사무총장 외에 우윤근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부총장,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기홍 수석대변인, 박수현·한정애·김영근 대변인 등도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 정부, 남수단·레바논 PKO 파병 연장 추진

● 정부가 올해 말 기한이 종료되는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 연장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이들 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PKO 파견은 1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 반기문 총장, 북한 외무상 27일 접견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다.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반 총장은 유엔총회에서 북한 대표로 연설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리 외무상을 27일 공식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유엔과 북한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 조경태 "대리기사 폭행, 진상조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했다는 논란과 관련, 같은 당 김현 의원이 현장에 있었던 것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당 의원이 연루돼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께, 그리고 대리기사 분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옆에서 적극적으로 그 것을 만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다른 당에 항상 사과하라, 반성하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당은 제대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이 빨리 사과 성명을 내야 하는데 당에서는 그런 비상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 자산가 거액외화 반입

## 신격호·이수영 회장 등 재벌 총수 포함 20명 5000만 달러 규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OCI 이수영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이 5000만 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금융당국이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명단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로,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 달러 이상 들여올 때 반입목적 등 영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들중 일부는 은행측이 의심거래라며 돈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를 하고 돈을 찾아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반입자금 가운데 일부가 돈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들의 불법의심 거래를 검사하는 것은 맞지만, 검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세월호 사고 이후 부산 첫 수학여행** 22일 부산 동래구 충렬사 앞에서 금정고 2학년 학생들이 김석준 교육감의 배웅을 받으며 3박4일 일정으로 관광버스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부산에서 첫 수학여행이다. 학교 측은 260여 명의 수학여행단에 인솔교사 이외에 안전요원 2명을 배치했다. /연합뉴스

삼성세탁기 고의 파손 이어 기술유출 의혹까지

# LG전자 '진퇴유곡'?

LG전자가 또다시 불미스러운 상황에 휩싸였다.

LG전자의 상황을 보면 '진퇴유곡(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거나 물러서지 못하다)'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최근 세탁기 파손 혐의로 LG전자 조성진 사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기술유출' 의혹까지 더해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삼성전자가 국책 연구과제 공모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에어컨 관련 기술 정보를 빼낸 혐의로 LG전자 허모(53) 전 상무와 윤모 전 부장(44)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한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연구개발 공모에 삼성전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두 공모에 참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LG전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자료를 빼돌렸다는 건 윤모 팀장의 주장"이라며 "현재는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모 팀장은 2012년 10월 내부 감사를 통해 회사 자금 배임 혐의가 드러나 2013년 1심과 항소심을 통해 징역 4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라며 "해당 임원도 2011년 말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불거졌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전자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사건과 맞물리면서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보안검색 강화로 붐비는 인천공항** 22일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보안검색 강화로 인천공항 출국장이 붐비고 있다. /뉴시스

#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땐 3년 자격제한

## 건설 일용근로자 7일 더 빨리 받아

앞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까지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게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수급 처분횟수가 3회면 1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건설 일용 근로자가 예전보다 7일 더 이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이직확인서가 폐지된다. /윤다혜기자 ydh@

# '술값 난동' 부장판사 결국 면직

술값시비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직해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며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반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때는 사직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 '성인물 무료' 미끼 개인정보 빼내 121억 '꿀꺽'

모바일 성인사이트 성인인증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2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2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모바일 성인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정보로 전혀 다른 PC사이트에서 매월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19만명으로부터 1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우모(3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무작위로 음란성 스팸문자 80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모바일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동영상 무료 보기를 위해 성인인증을 해야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28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조사 결과 우씨 등은 피해자들의 항의가 들어오면 결제를 취소해주고, 기존 회원들은 다른 사이트로 옮겨 계속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 일반현미를 특허 현미로 속여 유통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일반현미를 특허받은 현미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최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경남 통영시의 사무실에서 일반 현미를 원적외선과 게르마늄을 코팅 처리한 특허받은 현미인 것처럼 포장한 뒤 전국에 1만2500kg, 시가 1억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유통한 현미가 게르마늄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무실을 덮쳐 덜미를 잡았다. /윤다혜기자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深地底住25

▲地下電站的設備已很殘舊。

死守發電

在湖南省宜章縣楊梅山鎮礦區，有一座神秘的「地下水電站」，深藏於地下380米。25年來，在一批批職工的堅守下，源源不斷地向外輸送電力。因為長期的地下工作，現在很多職工都患上了職業病，大多數人都得了嚴重的神經衰弱、風濕病和關節炎。

發電站內，濕度比較重，職工患風濕，幾乎是沒辦法避免的。而且機器運作時產生的噪音很大，職工平時在一起談話，都要嘴巴對住耳朵。職工要與外界的聯絡，就只有通過固網電話，平常除了看書看報打發時間，就只能看看影碟，不過也僅限於看畫面和字幕，因為實在太吵。

職工每班要上24小時，

metro Brazil


Roubos no met
CPTM crescem

**지하철 강도 피해 심각**

상파울루 지하철 및 전철역 안에서의 도난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브라질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절도 건수는 247건으로 177건이었던 작년 동기 대비 39.5%가 증가했다. 도난 신고 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2월(45건)과 4월(41건)이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흉기 절도 사건 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만 89건으로 75건이었던 작년 동기 대비 18.6%가 늘었다.

metro Nicaragua


s espacios en la capital

**1년에 하루는 '착한 일' 하기**

도심 속 요가, 길거리 시 암송, 클래식 음악 연주회…. 최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구아는 다양한 활동으로 도시 분위기를 색다르게 연출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마나구아 100개의 날' 행사 때문이다. 이 행사는 1년 중 하루는 수도를 위해 시민이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로 열린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몇 년 전 처음 시작됐다. 니카라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 종유석 물로 밥지어 먹고 일해

## 지하 발전소 노동자들 힘들지만 묵묵히… 한번 들어오면 24시간 근무



중국 후난성 이장현 양메이산진 광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수력발전소가 있다. 지하 380m 아래 자리한 인허(陰河)발전소는 25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 덕분에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를 마을에 공급 중이다.

발전소 내부는 매우 습해서 노동자 대부분이 류머티즘을 앓고 있다. 기계 소음 때문에 평상시 이야기를 할 때는 입을 귀 가까이 대고 말해야 한다. 외부와 연락하려면 전용전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휴식 시간에 잠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책이나 비디오를 보는 것이 전부인 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자막으로 봐야 한다.

오랜 기간 지하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신경쇠약, 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24시간씩 2인 1조 교대로 일한다. 하루 일을 하면 이틀은 돼야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루 만에 다시 지하로 내려가야 한다.

퇴역군인인 추즈(楚智)는 발전소가 가동되면서부터 일하기 시작해 25년을 일한 원로 노동자로 기계점검과 유지보수 등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발전소에 출입하는 것이 불편해서 한번 들어오면 24시간을 일해야 한다"며 "일하는 동안 식사나 휴식도 모두 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실내 온도와 습도가 높아서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밥을 해먹는 것도 모두 노동자의 몫이다. 음식 재료를 준비해 들어가고 보통 하루에 두 번 간단한 음식을 해 먹는다. 내부에 고인 물은 광물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세수를 하거나 식재료를 씻을 때 종유석에서 떨어진 물을 사용한다. 마실 물은 모두 외부에서 가져온 물을 이용한다.

어우쯔핑(歐資平) 발전소장은 "중국에서 자연 통풍이 되는 가장 긴 갱도다. 윗세대 광부들이 피땀 흘려 발전소를 완공했고, 현재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을 딛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연간 발전량은 700만kW, 누적량은 약 1.7억kW"라며 자랑스러워했다.

반면 근로자들은 "현재 설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수급 조절이 잘 안 돼 수지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발전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국에 호소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Секрет молодости заключён в арфе

## 하프 연주하면 장수 두뇌·신체 '하모니'

러시아과학아카데미의 블라디미르 아니시모프 박사가 러시아방사선 및 외과기술과학센터의 겐나지 자리노프 박사와 직업에 따른 인간 수명 변화에 관한 이색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아니시모프 박사와 자리노프 박사는 러시아인 4만 9064명의 데이터를 분석, 음악가의 수명이 일반인보다 길며 이 가운데 하프 연주가의 수명이 가장 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니시모프 박사는 "약 5만 명의 사망자 중 가장 수명이 길었던 다섯 명은 모두 하프 연주가였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80.9세"라면서 "이밖에 장수한 사람들 중에는 지휘자나 클래식 음악가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수명이 짧았던 사람들 역시 음악가"였다며 "록 음악가의 평균 수명은 43.6세로 가장 짧았다"고 덧붙였다.

자리노프 박사는 이번 연구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장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악기 연주와 감상 과정에서 신체의 각 장기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리노프 박사는 특히 하프 연주가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음악가들이 가진 높은 예술지능과 인지 능력이 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프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두뇌와 신체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하프는 인간의 신체와 장기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일종의 소리굽쇠"라고 설명했다.

/예브게니 모루즈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 1년 남은 광주U대회 벌써 '성공예감'

지구촌 최대의 대학스포츠 축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U대회는 '창조의 빛, 미래의 빛-Light Up Tomorrow'를 슬로건으로 전세계 170개국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치러진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는 본격적인 현장 체제로 돌입하는 등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대회 준비 상황과 대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 들어 봤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사람이야기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김윤석 사무총장



김윤석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우너회 사무총장이 대회 마스코트 '누리비'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저 비용 고 효율 경제대회 실현 목표로 준비 한창

**◆12년 만이자 두 번째로 U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된다. 개최지로서 광주가 갖는 의의는.**

이번 대회는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로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광주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등 세계적인 민주·인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며 다양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광주U대회를 통해 또 한 번 세계인들에게 광주의 정신을 알리고 광주의 멋을 드러내고자 한다.

**◆환경·평화·IT·문화를 대회 4대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유와 의미는.**

광주U대회가 지구촌의 화합과 미래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의미가 크다. 광주U대회는 세계의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EPIC(Eco·Peace·IT·Culture)대회로 치러진다. 이 4대 비전을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유하면서 단순한 스포츠대회를 넘어 유·무형 유산을 남기는 대회가 되도록 하자는 목표와 의지를 담았다.

시설의 친환경 설계, 도심의 자연 복원 의미가 첫 번째 비전인 '에코(Eco)'에 담겨있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델이라는 광주의 정체성이 '피스(Peace)'에, IT강국인 한국과 광주의 광기술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IT'에 담겨있다. 문화도시 광주의 전통을 살려 문화축제를 마련하겠다는 의미가 '컬처(Culture)'에 담겨있다.

**◆주경기장을 포함한 신축·리모델링 경기장 등 시설 준비 상황은.**

경기시설은 총 70개소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최소 규격에 맞췄다. 기존 시설(67개소·95.7%)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남·북 경기장(25개소·35.7%)을 사용해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였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양궁장 등 3개소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해 사용하기로 했다. 수영장은 남부대학교, 다목적체육관은 광주여자대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축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대회 후 유지관리 부담까지 덜어냈다. 개보수 대상 시설은 현재 기본 설계 중으로 올 9월 이후부터 각각 공사에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천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이와 연계한 활동은 있는지.**

인천대회는 광주U대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국제대회를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 운영 실전감각을 익히고 국제대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있다. 대회기간 전부터 조직위원회 직원들을 운영요원으로 파견해 경기 운영과 시설·선수촌·문화행사·자원봉사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직접 참여토록 하면서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제관에 홍보관을 열고 각국 선수들과 관람객에게 광주U대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제대회를 보면 자칫 외형에만 집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광주U대회는 재정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조직위원회는 광주U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준비단계부터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민에게 한푼의 빚도 남기지 않는 '저비용·고효율 경제대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신설 경기장 최소화▲기존 경기장 개보수▲100% 민자유치 도심 재건축 방식의 선수촌 건설 등으로 건설 비용을 줄여가기로 했다. 개·폐회식 간소화 등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FISU와 협상을 통해 마케팅 권리를 100% 확보, 대회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초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사업비도 무려 1200억원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 5월 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서 광주U대회가 국제스포츠대회 우수재정모델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경제조사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 3조7000억원, 부가가치 1조5000억원, 고용창출 3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생산 1조9000억원, 부가가치 9000억 원, 고용 2만 명에 달했다.

간접효과로는 대회 개최로 인한 교통망 확충·도심재생사업 등 인프라가 개선돼 지역경제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대회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개·폐회식을 꼽을 수 있다. 광주의 문화예술과 정신을 담아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치를 계획이다.

총감독은 뮤지컬 제작 감독으로 유명한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 감독이 맡고 있다. 총감독은 개·폐회식을 통해 젊은이들의 열정을 미래지향적으로 담아내겠다고 했다. 이 무대를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 market index <22일>

| | | |
|---|---|---|
| 코스피 | 2039.27 | (–14.55) |
| 코스닥 | 577.35 | (–4.03) |
| 금리(국고채 3년) | 2.35 | (–0.02) |
| 환율(원·달러) | 1043.00 | (–1.50) |

# 삼성 또 삼성동 땅 베팅하나

##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검토…코엑스~잠실 잇는 삼성타운 겨냥

삼성그룹이 재차 삼성동 부지 입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새 주인이 되는 것을 지켜본 삼성이 새로 노리는 곳은 같은 지역의 서울의료원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이 다음 달 진행되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입찰을 검토 중이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2011년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매물로 내놓은 곳이다.

삼성그룹이 한전부지 인수 실패에 대비해 이른바 '플랜B'로 지목한 곳이며 한전 부지보다 먼저 입찰을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서울의료원 부지가 삼성그룹의 차선책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전부지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서울의료원 부지의 규모는 한전부지의 40% 수준인 3만1657㎡(약 9600평)인 만큼 상대적으로 총 매입 금액이 낮다.

게다가 이곳의 공시지가는 3.3㎡당 4363만원으로 한전 부지(6171만원)의 약 70%다. 즉 덩어리로 보나 ㎡당 가격으로 보나 합리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서울의료원 부지는 '삼성 타운'을 완성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삼성이 2012년 인수한 한국감정원 부지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두 곳을 연계할 경우 현대차그룹의 통합 사옥에 버금가는 위용을 갖출 수 있다.

여기에 조만간 매물로 나오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지를 삼성이 얻는다면 매머드급 삼성 타운을 만들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삼성그룹이 서울의료원·종합운동장 부지를 예상대로 거머쥔다면 현대차그룹보다 적은 돈을 쓰고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결과론이지만 애초 삼성이 이런 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거 지역이 많은 잠실까지 '삼성 타운'이 닿을 경우 파급효과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입찰 여부는 그날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 뉴스&뉴스



속이 빨간 '블러드 오렌지' 2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모델들이 '블러드 오렌지'를 선보이고 있다. '블러드 오렌지'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에 나타나는 빨간 과즙이 피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5개 1묶음에 1만원. /연합뉴스

### "늦더라도 원하는 곳에"

●22일 공모전 포털 씽굿과 취업·경력관리 포털 스카우트가 2040세대 대학생·직장인을 대상으로 '2014 취업조언'을 설문조사한 결과 '늦더라도 원하는 곳에 가세요'가 38.7%로 1위를 차지했다.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마세요'(23%),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세요'(13.9%), '좌절하지 마세요'(5.2%)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에는 '분명한 진로목표 설정'(2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국명기자 kmlee@

### 올레tv모바일, '3D 전용관'

●KT미디어허브의 모바일TV 서비스 '올레tv모바일'은 업계 최초로 '3D 콘텐츠 전용관'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KT미디어허브에 따르면 3D 콘텐츠 전용관 내에는 50여 편의 3D 콘텐츠가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겨울왕국', '어벤저스'와 같은 최신 인기영화를 비롯해 '뽀로로' 등 애니메이션 작품이 마련된다.

올레tv모바일은 '3D 전용관' 오픈을 기념해 다음달 12일까지 3D 콘텐츠 감상에 필수인 3D 뷰어 '펀글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레tv모바일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전 응모 후 '극장동시' 콘텐츠를 구매하면 된다. '펀글라'는 선착순 1000명에게 제공된다. /이재영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발행·인쇄인 | 남궁호 |
| 사장·편집인 | 김종학 |
| 편집국장 | 조민호 |
| 광고문의 | 02)721-9851,3 |
| 독자센터 | 02)721-9861 |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아빠의 구직 고용노동부와 6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공동주최로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을 찾은 한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 앞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찍은 기업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월 7만원 요금제 써야 보조금 100%"

## 단말기 유통법 취지 무색…"통신비 늘어날수도"

다음달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최고액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말기 유통법 취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것인데 요금제 기준선이 높게 잡히면서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말기 유통법의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는 25만~35만원이다. 이 같은 보조금 지급 범위는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 예상이익과 제조사 장려금 규모를 더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살펴가며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상위 30% 구간을 2년 약정의 경우 7만원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부터 출고가 100만원인 스마트폰을 구입 시 최고액의 보조금인 35만원을 받기 위해선 매달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2년 동안 이용해야 한다. 여기에 보조금을 제외한 단말기 대금까지 합하면 이 이용자는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2년간 이동사에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가 확정되면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를 한번 교체하기 위해서는 불법 보조금이 강력 제재되면서 단말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고가의 요금제마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소비자 간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가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 IT공룡 카카오 유통공룡 되나

IT 강자로 떠오른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유통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카카오는 22일 모바일 쇼핑 서비스 '카카오픽(Kakao Pick)'을 전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압도적 1위인 '카카오톡' 플랫폼을 바탕으로 난공불락으로 여기던 모바일 쇼핑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모바일 쇼핑은 홈쇼핑 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여기던 분야다.

카카오픽은 카카오 선물하기 세부 기능인 '오늘의 특가' 코너에서 출발했다. 하루에 한번 특정 상품을 특가로 선보이는 이 코너는 매번 매진되는 인기를 얻었다. 카카오는 오늘의 특가 코너를 기반으로 최근 선보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시너지 효과를 꾀했다.

카카오픽의 가장 큰 특징은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적용한 '친구찬스'다. 서로의 취향을 잘 아는 친구들끼리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로 쇼핑 정보를 공유하면 가격 할인 폭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공동 구매로 가격을 낮추는 소셜 커머스와 비슷하다. 카카오픽이 시장에 안착하면 소셜 커머스와 홈쇼핑 업계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HNT 하나투어리스트

모으면 모을수록 대박 혜택!

# 혜택 가득한 자유

# 하나 Free




자유여행을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하나Free" 혜택!**

모으면 모을수록 커지는 대박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많은 혜택 누리세요~!

**▸혜택 UP | 하나Free 상품 동시 구매 혜택!**

| 하나Free상품 | 할인혜택 | 마일리지혜택 |
|---|---|---|
| 자유여행만들기: 해외호텔 +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 최대 30% | |
| 항공권 + 해외호텔 | 해외호텔 10%<br>(단 르칸, Ibis, Adagio 호텔체인 할인 제외) | 5,000마일리지 추가적립 |
|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br>(현지투어, 패스, 입장권은 항공권과 당일 동시 구매시 할인적용) | 5,000마일리지 추가적립 |
| 해외호텔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br>(현지투어, 패스, 입장권은 해외호텔과 당일 동시 구매시 할인적용) | 총금액의 1%마일리지 추가적립<br>(최대 5,000 마일리지) |

**혜택 조건**

- 하나투어닷컴을 통한 온라인 예약에 한해 혜택을 드립니다.
- 동시구매는 반드시 같은날 자정 이전에 모든 예약을 하셔야 혜택이 적용 됩니다.(단, 해외호텔 할인 적용은 예약일자와 무관함)
- 할인 혜택은 반드시 전화로 할인 요청을 하셔야만 할인 적용됩니다. 단, 자유여행만들기의 상품 조회시 가격은 이미 할인 적용 된 가격입니다.
- 하나투어마일리지클럽에 가입하셔야만 마일리지 적립을 받으며 예약코드당 예약자 한분에게만 적립됩니다.
- 추가 마일리지 적립은 상황에 따라 늦어질수 있으나, 항공출발일 및 호텔투숙일 기준으로 그 다음달 15일 이전에 적립됩니다.
-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은 최대 할인율로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더블마일리지 적립의 경우 상품가격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시 추가비용에 대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223

www.hanatourist.com

상기상품은 (주)하나투어에서 각각의 공급처에서 제공받아 알선/판매합니다. 항공기,열차표,입장권,숙박권 등은 해당 공급자의 판매규정에 따라서 취소위약금 등이 발생되오니 예약 및 구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주)하나투어 ■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26004-1993-6(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 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 상반기 우리·신한 웃었다

## 지주사 순익 전년比 2배 증가… 자산은 신한·하나·농협 순

올 상반기 은행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은행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11개 은행지주사의 연결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적립 후)은 4조9478억원으로 1년전보다 2조5998억원(110.7%)늘어났다.

이는 유가증권 평가·처분 등 비이자이익이 1조1000억원 증가한데다 대기업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 7000억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으로 약 5000억원 줄었다.

은행지주 11개사 중 9개사는 순이익을 시현했으며, 이 가운데 우리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1조338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신한(1조1034억원), KB(7722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국계인 씨티와 SC는 희망퇴직 등에 따른 비용발생으로 각각 668억원, 147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지주의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계상했던 지방은행 분할 관련 법인세비용의 환입 등으로 지난해보다 1조1080억원(481.7%)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지주사의 연결총자산은 6월말 현재 193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7% 커졌다.

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신한지주로 323조원을 기록했으며 하나(314조9000억원), 농협(310조9000억원), KB지주(299조1000억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은행부문이 8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융투자 5.8%, 보험 5.3%, 비은행 부문이 4.1%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지주의 총자산은 민영화 추진 등으로 전년말 대비 82조원 감소했고,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를 인수한 농협지주의 총자산은 56조4000억원 증가했다"며 "이밖에 나머지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은 6월 말 현재 13.86%로 지난해 말보다 0.08%p 하락했다. 이는 부적격자본증권의 자본미인정금액이 증가한데다 일부 은행지주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조기상환 등에 의한 총자본이 감소한데 기인했다.

같은 기간 은행지주회사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1.81%로 전년말의 1.91% 보다 0.10%p 떨어졌다.은행의 대기업 여신 관련 부실채권 정리규모(대손상각, 매각 등)가 신규부실 발생 규모보다 컸기 때문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 우리銀, '수출기업 마스터론' 출시




우리은행은 22일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한 '수출기업 마스터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50만 달러와 우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BBB- 등급 이상인 업체로 금리는 출시일 현재 신용대출로 신청시 최저 연 3.47%(3개월 코리보 기준)다.

부가서비스로는 일일 외환시장동향 통지서비스와 환율 SMS통지서비스, 수출입통관·관세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공장과 사무실 등 업무용 부동산으로 담보대출 신청시 담보인정비율을 10%p 우대하며, 시설자금대출 신청시에도 5%p~10%p 한도를 늘려준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도와줄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출기업 마스터론'은 채산성 악화와 환율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입결제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저금리로 외화대출을 제공하는'외평기금차입 외화대출'과 저금리 대출상품인 '우리수출진흥금융'을 연이어 출시하는 등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상품패키지를 구성해 중소기업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 국민銀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KB국민은행이 22일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들을 위한 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KB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협약을 통해 매월 지급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도 매월 입금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중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를 지킬 수 있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또 KB국민은행은 'KB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가입자에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임에도 평균 잔액 100만원까지는 연 2.0%(기본이율 포함)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아울러 연금수령실적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인터넷뱅킹 다른은행(타행) 이체수수료 등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및 다른은행(타행)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김민지기자 minji@




'인천 방문 외국인 고객위한 금융서비스' 신한은행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찾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지점에서는 24시간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8일까지 인천을 찾은 외국인고객이 환전 시 20% 환율우대와 사은품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제공

# 금감원장 "KB사태, 금융권 깊이 반성해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금감원 11층에서 열린 월례 임원회의에서 최근 KB금융사태에 대해 "경영진간 내홍(內訌)으로 금융회사와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두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우리 금융권 전체가 이번 사태를 원칙과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불실기본(不失基本)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무엇이 고객과 주주, 그리고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KB금융사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KB금융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KB금융사태에서 드러난 금융그룹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부실, 성과평가체계 미흡, 이사회 운영방식 등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주사와 계열 금융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감독 ·검사시스템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지주사·은행 경영진 간 갈등이 반복된 점에 대해 감독당국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금번 사태 수습과정에서 제기된 제재절차 지연 등 제재심의제도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감원의 기본업무인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금융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편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 상장사, 자산·지분 매각 등 구조조정 선호

## "투자 목적은 OK, 부채 상환은 '빨간 불'"… 매각 목적 선별해야

국내 상장기업들이 자산이나 보유 지분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기보다 구조조정을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장기업의 자산·지분 매각의 성격을 잘 살펴 펀더멘탈 건전성 지속 여부를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잇따라 관련 공시를 쏟아냈다.

팬택에 부품을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사 피앤텔은 법정관리 위기에 놓이자 64억원 상당의 자회사 유형자산(토지·건물)을 처분한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피앤텔 측은 팬택이 회사 매출의 10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장기간 영업이 중단될 우려에 이처럼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산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은 인건비와 부채 상환에 쓸 계획이다.

피앤텔의 주식은 4년 연속 영업손실 등의 사유로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지난 4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개선기간을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인 베이직하우스는 주요 자회사인 홍콩법인의 보유 지분 10%를 453억원에 골드만삭스 등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19일 공시했다.

베이직하우스는 이번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을 부채 상환에 쓸 예정이다. 연간 30억원에 달했던 이자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분기부터 실적 부진에 빠져 적자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여러 재무적 부담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목표주가를 올려잡은 곳도 나왔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 91.8% 감소하는 등 향후 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라며 "그러나 이번 매각으로 연 20억원 수준의 흑자전환과 이자 비용 부담이 해소된 데다 중국 자회사에 대한 투자기관의 신뢰가 확인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하고 목표주가를 3만1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올해 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 종료를 목표로 하는 금호산업은 채권단이 연내 보유 지분(57.5%)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최근 주가가 급등했다.

금호산업의 주가는 지난 19일 상한가까지 치솟아 장중 한때 1만3250원에 거래됐다.

기업들의 자산·지분 매각이 늘자 시장 전문가들은 매각 사유를 잘 살펴봐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산·지분 매각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좋은 투자처를 마련해서 기업의 미래를 위해 건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차원이라면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반면, 한계상황에 도달해 부채를 갚기 위해 매각하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신호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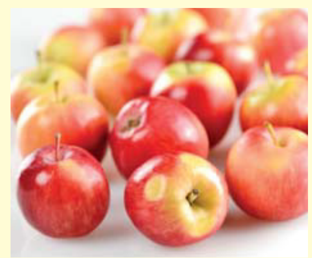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조직문화 통합으로 1등 증권사 되자"**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일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통합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 임종룡 농협지주 회장은 "성공적인 조직문화통합으로 압도적인 1등 증권사로서 타사와 차별화된 조직문화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농협금융 제공

# 신선 과일 먹으려면 이렇게

### 찐순이 주부 경제학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이럴때는 충분한 수분과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 과일을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보관법을 알아보자.

사과는 보관을 잘못할 경우 다른 과일과 채소를 상하게 만들 수 있다. 때문에 보관 방법이 중요하다. 사과는 다른 과일과의 접촉을 피하고, 배와는 따로 보관해야 한다. 그늘진 상온에 보관하면 사과의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또 사과는 하나가 썩게되면 보관돼 있는 과일이 함께 급속도로 상한다. 만약 조금 상한 것이 있다면 분리하거나 과감히 버려주는 게 좋은 방법이다.

수박은 수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조각을 낸 후 냉장 보관을 할 경우 수분이 날아가 제 맛을 느끼기 어렵다. 따라서 수박을 쪼갰다면 랩을 씌워 수분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수박을 깍뚝썰기 해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수분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 보관할수 있다.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으면 검은 색으로 쉽게 변한다. 이 때문에 서늘한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 꼭지부분에 랩을 씌워놓거나 굴곡진 면이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는 것이 좋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빨리 익는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먹으려면 상온에서, 천천히 익히고 싶다면 냉장 보관이 괜찮다.

/김민지기자 minji@

# 수출입銀, 인니 LNG 사업에 3억8300만달러 PF금융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한국수출입은행은 22일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Donggi Senoro) LNG 사업에 대출 1억9300만 달러와 보증 1억9000만 달러 등 모두 3억8300만 달러의 PF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LNG' 사업은 인도네시아 북부 술라웨시(Sulawesi)섬 동부해안에 천연가스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LNG를 생산·판매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미쓰비시 상사, 인도네시아 Pertamina(에너지 공기업)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양국의 ECA(공적수출신용기관)와 상업은행들까지 참여하는 첫 LNG 개발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전 개발과 LNG 플랜트 운영, LNG 구매, 운송까지 LNG value chain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수은은 JBIC, NEXI 등 일본계 ECA와 공동으로 전체 사업비 29억 달러 중 약 15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은의 보증부 대출(1억9000만 달러)에는 외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상업은행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 메트라이프, 캠핑 체험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지난 20일 서울대공원 자연캠프장에서 독거어르신과 캠핑 체험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텐트를 설치하고 바비큐 요리도 직접 대접했다.

김종운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이사장은 "행사에 참여한 모두는 한 가족으로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독거어르신, 장애아동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사내에서 진행되는 팀별 순회 자원봉사, 임직원 가족이 동참하는 자원봉사, 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 소속 재무설계사(FSR) 연계 자원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 30일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 공고

## 교보, 프랑스 악사와 컨소시엄 통해 인수 추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제99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매각을 오는 30일 공고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수 지분은 10월 하순께 매각 공고를 실시하며, 경영권 매각과 소수 지분 매각 입찰은 11월 28일 마감할 예정이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6.97% 가운데 안정적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30%는 일반 경쟁으로 입찰하고, 나머지 26.97%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 매각공고가 확정됨에 따라 교보생명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교보생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 30%를 인수하려면 3조원의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악사(AXA)그룹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인수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최근 앙리 드 카스트리 악사그룹 회장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회동을 가졌다. /백아란기자

# SK텔레콤 "고객 가치 경쟁시대 이끈다"

## 단말기 유통법 실시 이후 '상품·서비스 중심' 패러다임 변화 예고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등으로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고객의 실질적 혜택이 증대되는 '고객 가치 경쟁 시대'를 이끌겠다."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업계 선두 사업자로 '바른 경쟁'을 선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인식 사업총괄은 이를 위해 고객이 주인공이 되고, 고객 가치가 최우선 되는 '창조적 고객가치 혁신'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바른 경쟁 ▲가치 혁신 ▲가치 공유를 제시했다.

우선 SK텔레콤은 단말기 유통법의 조기 안착과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대국민 이해도와 유통망 인식 확산을 위한 집중적인 캠페인을 펼친다.

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말·서비스·부가 혜택을 결합한 상품 등 맞춤형 서비스 3종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T멤버십도 한 단계 진화해 고객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객 이용도가 높은 제휴사를 중심으로 멤버십 할인 혜택을 추가하고, 각종 차별화된 이벤트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통신서비스 외에 헬스온 샤인, B 박스, 스마트빔 등 미래형 통신 상품의 체험과 구입은 물론, 개인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혁신형 프리미엄 매장'도 구축 중이다. 혁신형 프리미엄 매장에서는 고객별 이용 패턴에 맞는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를 넓히고 개인밀착형 구매 경험을 제공한다.

이밖에 SK텔레콤은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주거생활 전반에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홈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SK텔레콤은 경쟁사와의 협력과 중소 협력업체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이동통신과 ICT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지난 2월 선보인 차세대 통화 플랫폼 'T전화' 서비스의 관련 기술을 경쟁사에게 전격 공개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 측은 'T전화' 기술 공개가 기반 기술의 국내 표준화와 통신사 간 협력을 이끌어내 고객 서비스의 협력적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의 '고객가치 경쟁'으로의 의지 표명은 단말기 유통법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통신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과거 이동통신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불법 보조금 사용이 원천 금지되는 만큼 보조금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간 차별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의 이통사를 선택에 단말기 가격이 영향을 끼쳤지만 앞으로는 이통사의 품질, 서비스,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할 것"이라며 "이통사도 기존 불법 보조금을 통한 고객 뺏기 경쟁에서 상품·서비스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 '포스파워'로 석탄발전 첫발 딛다

## 포스코에너지 사명 바꿔… 북미LNG 직도입 추진

포스코그룹의 미래를 이끌 핵심 계열사 포스코에너지가 석탄발전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최근 동양파워 인수를 마무리한 포스코에너지는 22일 사명을 '포스파워'로 정했다.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230만㎡ 부지에 1000MW급 발전기 2기를 건설해 2021년까지 총 2100MW 규모의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포스코에너지 황은연 사장은 "가스(LNG)발전이 주력인 포스코에너지가 석탄으로 눈을 돌린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포스파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북미 LNG 직도입과 포스코에너지 기업공개(IPO)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폴더형 스마트폰 '와인스마트'** LG전자는 26일 '와인스마트'를 3개 통신사를 통해 출시한다. '카카오톡' 전용 물리 버튼을 적용한 와인 스마트는 문자, 주소록, 앨범, 카메라 등 기능들도 각각의 전용 물리 버튼으로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 /LG전자 제공

# 한우물정수기 '맛있는 치유의 물 공급'

"한우물 정수기는 전기분해식 정수기입니다."

30년 동안 정수기 연구에 집중해 온 강송식(76)대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최근 한우물 정수기의 정수 방식에 대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물 정수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수기의 역삼투압이 아닌 전기분해식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덕분에 물의 미네랄마저 걸러내는 역삼투압 방식과 달리 몸에 좋은 물을 제공하고 있다.



강 대표는 "몸에 좋은 물은 미네랄이 살아 있는 전해약알칼리수"라며 "몸에 이상이 없는 물은 좋은게 아니다. 말 그대로 몸에 보탬이 되는 물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을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이제 주부들이 진정 착한 물이 어떤 물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ysw@

# 중고차, 원하는 가격으로 경매에

## kt렌탈, '중고차 판매가격 보장제도' 운영

타던 차를 중고차로 파는 이들은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인지, 명의이전 등 절차는 제대로 처리되었는지가 늘 걱정거리다. 대한민국 No.1 렌터카 브랜드 kt금호렌터카를 보유한 kt렌탈(대표이사 표현명)은 자신의 차를 판매하려는 개인고객을 위한 중고차 판매가격 보장 제도를 운영해 이런 고민거리를 덜어주고 있다.

중고차 판매가격 보장제도는 개인고객이 kt렌탈 오토옥션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의 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차에 대한 고객희망가격과 경매장 매입제시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경매 출품을 통해 차량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개인출품 경매를 통해 희망하는 가격으로 낙찰 시 낙찰 가격으로, 유찰 시에는 기존에 경매장에서 제시했던 가격으로 차량 판매가격을 보장해준다.

/임의택기자 ferrari5@



롤드컵 조별리그 A조 1위를 굳히고 있는 삼성 화이트의 모습. /라이엇게임즈

# 삼성 화이트, 전승으로 8강

## '롤드컵' 조별 예선 종료

삼성 화이트가 롤드컵 우승에 한발짝 다가섰다.

2014시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 대표 삼성 화이트는 1차 조별리그 참가팀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으로 8강에 진출했다.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 대회는 월드컵 토너먼트 방식과 같아 '롤드컵'으로도 불린다.

삼성 화이트는 개막 나흘째인 21일 대만 NTU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조별예선 A조 마지막 경기에서 에드워드 게이밍을 꺾었다. 이로써 삼성 화이트는 6전 전승이란 기록을 세우게 됐다.

조별 경기 내역을 살펴보면 A조는 삼성 화이트가 6전6승으로 1위, 에드워드 게이밍과 AHQ가 3승3패로 공동 순위였지만 순위 결정전에서 에드워드 게이밍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2위에 올랐다. B조에서는 로열클럽이 5승1패로 1위, TSM이 4승2패로 2위를 했다. 각조 1·2위가 8강에 진출하는 규칙에 따라 A조 삼성 화이트와 에드워드 게이밍, B조 로열클럽과 TSM이 8강에 오른다. 8강전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A조 1위 삼성 화이트는 B조 2위 TSM과, B조 1위 로얄 클럽은 A조 2위 에드워드 게이밍과 각각 대결을 벌인다.

한편 롤드컵 C·D조 조별예선은 싱가포르로 옮겨 25~28일 진행된다.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는 삼성 블루와 나진 실드는 각각 C·D조에 배정돼 예선을 치른다.

/장윤희기자 unique@

# "한층 부드러워진 변속감각이 일품"

임의택의 차차차

■쌍용 코란도 스포츠 CX7

## 카본 그레인으로 단장하고 스마트키 갖춰
## 벤츠 자동변속기 적용 주행감각 업그레이드




▲한 줄 평가: 레저 장비를 싣기에는 최고다. 변속은 더욱 부드러워졌다. ▲평점: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잘 된 성형수술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액티언 스포츠'에서 '코란도 스포츠'로 개명하면서 과감히 얼굴을 뜯어고친 후 이 차의 주가는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 이름과 얼굴만 달라진 게 아니다. 매년 상품성을 개선하면서 고객만족도를 높인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이번에 쌍용차가 내놓은 2015 코란도 스포츠는 편의장비를 개선하고 벤츠 변속기를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겉모습은 소소한 변화로 멋을 부렸다. 적재공간을 넓힐 수 있는 루프랙을 더했고, 짐칸을 감싸는 데크랙의 디자인은 좀 더 세련되게 탈바꿈시켰다. 루프랙은 20만원, 데크랙은 45만원을 지불해 장착하는 옵션 품목이다. 슬라이딩 베드는 화물칸에 실은 짐들을 편리하게 넣고 뺄 수 있는 장비다. 이 역시 옵션(38만5000원)이다. 새롭게 바뀐 19인치 하이퍼 실버 휠도 선택장비(20만원)다.

실내는 고급 인조가죽시트를 확대 적용하고 센터페시아에 카본 그레인을 적용하면서 변화를 줬다. 폴딩 방식이었던 키는 버튼시동 방식의 스마트키로 바꿔 트렌드를 따랐다.

올해 초 4WD 모델에 적용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E-트로닉 5단 자동변속기는 기본형인 에코 모델을 제외한 2WD 모델에도 기본 적용됐다. 벤츠 변속기의 확대 적용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호주 비트라의 6단 자동변속기는 변속 타이밍을 제때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변속 충격도 지적된 바 있다. 벤츠 변속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좋은 솔루션이다.

변속 단수가 5단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고출력 155마력의 힘을 충분히 끌어 쓸 수 있는 데다, 벤츠 특유의 부드러운 파워 전달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2015 코란도 스포츠(2WD A/T)는 매끄러운 변속 성능 덕에 기존 연비 11.6km/ℓ보다 향상된 복합 연비 11.8km/ℓ를 기록한다. 시가지 구간이 많았던 이번 시승에서는 9.0km/ℓ의 연비를 나타냈다.

2015 코란도 스포츠는 경쟁차보다 저렴한 2068만원의 기본 가격에서 출발하는데, 시승차인 CX7 4WD 풀 옵션 모델은 3053만원이다. 2WD 풀 옵션 모델은 2712만원으로 다소 저렴하다.

코란도 스포츠는 2012년 출시 후 내수와 수출을 합쳐 2년 연속 3만5000대 이상 팔린 인기 모델이다. 레저를 즐기기에 좋은 차체구조와 더불어 연간 2만8500원에 불과한 자동차세,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혜택도 소유의 즐거움을 더한다. 이렇게 폭 넓은 활용도와 세제 혜택을 지닌 차는 국내에서 코란도 스포츠가 유일하다. 경쟁차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코란도 스포츠의 독주는 이어질 전망이다.

/ferrari5@metroseoul.co.kr




**소니 엑스페리아 모바일 출시**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소니코리아 홍보모델들이 소니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 Z3'와 '엑스페리아 Z3 콤팩트', 태블릿PC인 '엑스페리아 Z3 태블릿 콤팩트' 등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대생 "서울 취업 싫어요"

## 초봉 3600만원 원하고 지방 근무 선호

지방대 학생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출신대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2014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4개 지방대의 취업준비생 11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결과 희망 근무지는 지방(61.5%)이 서울 등 수도권(38.5%)보다 훨씬 많았다.

남학생(67.3%)이 여학생(55.3%)보다 지방에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지방에서 근무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부산대(65.4%), 충남대(60.0%), 전남대(59.4%), 경북대(5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바라는 초임 연봉은 남자 3811만원, 여자 3412만원으로 평균 3618만원이었다.

지방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40.9%가 '수도권의 주거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박성훈기자 zen@

# 삼성그룹 하반기 공채 26일 마감

## 직무적성검사 SSAT는 10월 12일

삼성그룹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하면서 구직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22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3급 신입사원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삼성그룹의 공채 선발 제도와 전형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다. 연초 논란을 일으킨 대학별 총장 추천제와 서류 필터링 강화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총장 추천제의 경우 대학별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삼성그룹이 할당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학 등급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월 삼성그룹은 취업시장 과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수정안을 발표했으나 대학 서열화와 스펙 조장 비난 끝에 이를 전면 보류했다.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23개 계열사 33개 모집군으로 4000~500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할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연간 9000여 명의 신입사원을 공채로 충원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2015년 2월 이전 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자로 전학년 평점 평균 4.5점 만점에 3.0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토익스피킹 또는 OPIC의 영어 말하기 점수를 소유하되 직군별로 상응하는 등급을 갖춰야 한다.

매번 10만명이 몰리면서 '취업 수능'으로 불리는 삼성그룹 직무적성검사 SSAT는 10월 12일 국내 5개 도시와 해외 3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삼성그룹은 필기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11월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계열사별로 내년 1~2월에 입사하게 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 "나도 스포츠맨"… 단지 옆에서 운동해볼까

## 여가·휴식 제격 체육시설 가까운 아파트 선호
## 이용료 저렴한 공영시설 인근일수록 금상첨화

지난 금요일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했다. 올해는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유독 스포츠 행사가 많아 이를 활용한 분양 마케팅도 한창이다. 운동시설을 강조한 아파트가 청약 성적도 좋게 나오곤 하면서 분양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운동시설에 대한 입주민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장, 심지어 수영장까지 갖추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공간의 제약이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이 모든 운동시설을 갖추기는 어렵기 마련이다.

이에 최근에는 멀리 나가지 않고도 운동을 즐길 수 있거나 경기 관람이 가능한 아파트가 선호되고 있다. 특히 비싼 사설 운동시설 대신 이용료 부담이 적은 공영 문화체육시설을 끼고 있는 단지들의 인기가 높다.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 분양된 '양산 롯데캐슬'의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찾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웅상문화체육센터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명품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건설사들도 이 같은 분위기를 활용해 저마다 운동시설과 인접한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휴식, 여가 등에 대한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운동시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며 "업체들도 이를 내세우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효성이 대전 유성구 전민동 일대 공급하는 '문지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갑천 조망은 물론, 갑천수변공원 이용까지 편리한 입지를 갖췄다. 갑천수변공원에는 축구장을 비롯해 농구장, 족구장 등이 조성돼 있다. 또 천을 따라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포스코A&C가 시공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상봉 듀오트리스'와는 용마공원이 가깝다. 용마공원은 축구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함께 인공폭포도 있어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 애용되는 곳이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에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영통'은 영통생활권 일대에서 가장 큰 '영흥체육공원'을 이용하기가 쉽다. 축구장과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실내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다.

경남 창원시 용원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대우건설 '창원 마린 2차 푸르지오'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청안근린공원이 인근이다. 또 한국토지신탁이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에서 분양 중인 '수원 아너스빌위즈' 일대로는 스포츠와 문화,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복합스포츠문화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 85㎡ 초과 아파트 용인 가장 많아

## 서울엔 강남구 최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경기 용인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총 353만8963가구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총 79만9813가구다. 이 중 시군구별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용인시로 모두 7만339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2만2172가구로 수도권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서울은 28만9011가구로 36.1%, 인천은 8만8630가구로 11.1%다.

용인시의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7만3393가구의 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현동 1만1285가구, 성복동 1만476가구, 죽전동 6366가구, 신봉동 6082가구, 풍덕천동 5203가구 등 순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 택지지구 개발로 공급됐고 용인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수지구 내에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용인시 다음으로는 고양시가 총 5만412가구로 뒤를 이었다. 일산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고양시에는 2010년을 전후로 덕이·식사지구에 중대형·대형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가구수가 크게 늘었다. 동별로는 식사동이 6965가구, 주엽동 5344가구, 마두동 5028가구, 행신동 4403가구, 탄현동 4392가구 등의 순이다.

성남시는 총 4만3840가구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 아파트는 분당·판교신도시가 위치한 분당구에 집중돼 있는데 동별로는 정자동에 8595가구, 이매동 5818가구, 수내동 5558가구, 서현동 5057가구 등 순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3만8660가구로 가장 많다. 수도권 전체에서는 네 번째다. 2000년대 이후 재건축한 새아파트가 대부분으로 동별로는 대치동 9253가구, 도곡동 7662가구, 압구정동 6057가구, 삼성동 3877가구, 청담동 2972가구 등 순이다. 하지만 아직 재건축에 들어가지 않은 압구정동 아파트 6000여 가구가 포함돼 있어 재건축이 진행되면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가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김두탁기자 kimdt@




**LH 사기 분양… "입주민 피해 해결하라"** 22일 강원 춘천시 퇴계주공5단지 앞에서 'LH 사기 분양으로 인한 휴먼타운 입주민 재산권 피해 원상회복 및 아파트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주민들이 LH와 지자체, 사법당국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포스코건설, 섬마을을 찾아 문화공연** 포스코건설이 지난 19~20일 이틀간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석모도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펼쳤다. /포스코건설 제공

# 롯데건설 신개념 아트월 'Dream 라인월' 개발

롯데건설은 시스템가구 전문업체인 영일산업과 동성사가 공동으로 입주민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거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Dream 라인월'을 개발, 국내특허와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건설이 개발한 'Dream 라인월'.

이번에 개발한 'Dream 라인월'은 거실의 아트월 벽체를 타일로 마감하되, 타일과 타일 사이에 선반을 걸 수 있는 히든 레일을 담아 입주민이 선반 및 수납장을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맞춤형 아트월이다.

기존의 거실 아트월이 장식판넬 등 단순히 디자인만을 고려했다면 'Dream 라인월'은 미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수납기능을 더한 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거주하는 가족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거실의 아트월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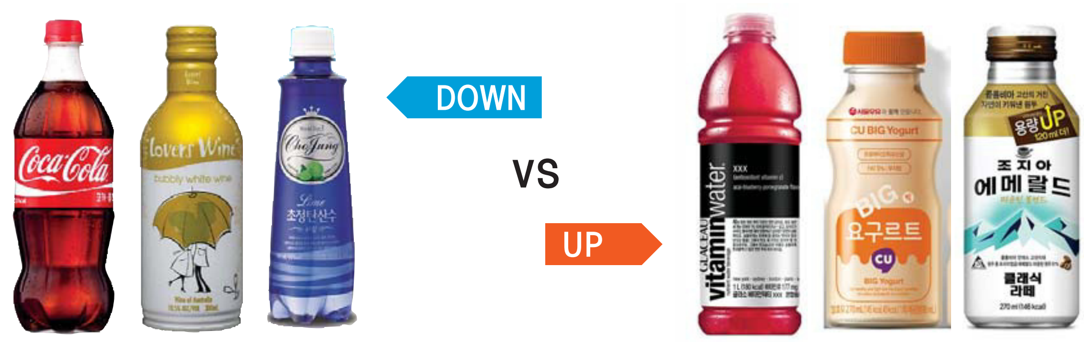
선반과 수납장은 색상과 크기 등 선택이 가능하며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현재는 4가지 레이아웃 중에 선택이 가능하지만 향후 유통망을 통해 추가로 선반이나 수납장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정민 롯데건설 디자인연구소 환경인테리어 팀장은 "거실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입주민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Dream 라인월을 개발했다"며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롯데캐슬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 음료, 사이즈 리뉴얼 열풍 분다

## 소비자 욕구에 맞춰 기존제품 용량 줄이거나 늘리거나




최근 국내에서 유통되는 음료 제품들의 사이즈 리뉴얼이 잇따르고 있다. 1인가구 증가와 레저·아웃도어 활동이 늘면서 휴대성이 강조되는 제품의 경우 소용량 바람이 불고 있다. 반면에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대용량 제품도 속속 출시되면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인 가구 타깃 음료는 사이즈↓**

먼저 싱글족과 소가족 가구 증가에 맞춰 기존 대용량 음료 제품들이 사이즈를 줄이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코카콜라의 777㎖ PET가 대표적인 사례다. 둘이 마시기에는 부족했던 500㎖를 보완하고, 소규모 가족이 마시기엔 다소 많게 느껴졌던 1.5ℓ 대용량 제품의 중간 사이즈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

팔도는 소형 가구를 위한 비락식혜와 비락수정과 1.2ℓ 제품을 출시했다. 이는 기존에 있던 1.8ℓ에서 용량을 다소 줄였다.

**◆캠핑족 겨냥, 소용량·휴대성 강조**

캠핑 등 야외 레저 활동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소용량 제품들도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코카콜라사의 미닛메이드는 신제품 '미닛메이드 5얼라이브(5alive)'를 100㎖ 용량의 파우치 사이즈로 내놓았다.

CJ제일제당은 쁘띠첼 미초 청포도에이드와 아이스 워터젤리 2종, 아이시안 블루베리에이드와 아이스 홍삼의 아이스 파우치 5종을 출시했다.

하이트진로가 최근 출시한 소용량 캔 와인 '와인스타'는 한 캔당 두 잔 정도 용량인 187㎖로 1~2인이 마시기 적당한 사이즈로 음용과 휴대가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신세계 L&B도 최근 300㎖ 소용량 알루미늄 캔 와인인 '러버스 와인' 3종을 출시한 바 있다.

일화는 500㎖ 패트병 보다 휴대가 편한 '초정탄산수 라임 350ml' 미니 패트를 내놨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용기 무게를 기존 제품보다 30% 가량 줄이고 인체공학적 디자인도 적용한 '석수'를 지난 4월 내놨다.

**◆소비자 패턴 분석으로 사이즈↑**

이와 정반대로 용량을 늘인 제품들도 있다. 코카콜라사의 라이프스타일 음료 브랜드 '글라소 비타민워터'가 최근 출시한 1ℓ 대용량 미니아팩이 그 경우다. 제품을 한번에 다량 구매해 일상 생활에서 수시로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음용 패턴 변화를 반영해 '트리플엑스(xxx)'와 '멀티브이(multi-v)' 2종에 한해 1ℓ 사이즈의 대용량 제품을 선보였다.

편의점 CU는 20~30대 성인 여성을 위해 기존 요구르트에 비해 용량을 대폭 늘린 'CU 빅 요구르트'를 출시했다. 회사 측은 빅데이터와 구매 현장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20~30대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작은 요구르트 4~5개 분량 용량을 선호해 기존 요구르트 제품 용량인 60~70㎖의 4.5배 큰 사이즈인 270㎖로 출시했다.

캔 커피 브랜드 '조지아 커피'는 지난 3월 프리미엄 커피인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알루미늄 보틀 제품 중 3종에 한해 기존 용량(270㎖)에서 120㎖ 업그레이드한 390㎖ 제품을 내놨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 '엄지맘' 모바일 쇼핑 큰손 등극

### 온라인마켓 소비성향 주시




#서울 용산구에 사는 전지우(33)씨는 모바일 쇼핑 마니아다. 다른 회원들이 추천해 놓은 핫딜 리스트를 보면서 갖고 싶었던 물건을 모바일 앱을 통해 특가 구매하기도 하고, 직접 상품후기나 평을 댓글로 공유하면서 정보를 나눈다.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엄지맘(mom)'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맥킨지앤드컴퍼니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쇼퍼를 일컫는 '엄지족'의 60%가 여성이며 그 중 전업주부가 32%를 차지했다. CJ오클락의 오클락앱 이용자의 63% 이상이 30~45세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지맘은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집단 중 하나로 모바일 쇼핑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커뮤니티·SNS 등에서 상품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나누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습득한 정보력을 십분 활용해 품질이 좋거나 합리적인 가격의 딜(거래)일 경우 구매를 망설이지 않는다. '몰테일' '진회맘홀릭' 등 육아·쇼핑 커뮤니티의 '핫딜' 게시판을 살펴보면 엄지맘의 모바일 쇼핑 행태를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자신이 살펴보던 쇼핑 앱의 핫딜 캡쳐 화면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의 좋은 상품을 직접 촬영해 실시간으로 올린다.

/김수정기자 ksj0215@




**"엄마 사랑해요"** 카페베네는 22일 정동 이화여고에서 '러브맘 프러포즈' 이벤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고3 학생들은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영상편지를 촬영했다. 해당 영상편지는 수능 당일 카페베네 겨울 신메뉴 기프티콘과 함께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전달된다. /카페베네 제공

# 티몬, 인천의 '맛있는 지도' 공개

### "기획전으로 놀거리·숙박 한번에 해결"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티몬이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기념해 '맛있는 지도-인천편' 동영상을 제작·공개했다. '맛있는 지도 기획전'은 주변 놀 거리부터 맛집과 숙박까지 한번에 예약할 수 있다.

'맛있는지도-인천편'에 월미도·동화마을·송도 센트럴파크 등 인천의 대표 관광지 주변의 12개 맛집을 소개했다. 주변 관광지를 함께 직접 탐방하는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인천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 중국어 자막 버전도 추가했다.

인천 지역의 대표 숙박시설과 놀거리들을 모아 기획전도 열었다. 특급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을 14만3000원에, 스카이리조트 골든스파&워터파크 이용권은 1만7500원에 준비했다. 또 키즈파크 키즈킹덤은 1만원에 판매한다.




송철욱 티켓몬스터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소비자들이 티몬과 함께 여행은 물론, 생활의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맛있는 지도 영상을 제작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티몬이 단순한 쇼핑 채널이 아닌 생활의 동반자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 "멤버십회원 구이메뉴 10% 할인"

### 강강술래, 가을맞이 알뜰외식 이벤트
### 돈가스·한우떡갈비 등 2+1 증정 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www.sullai.com)'가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고객들이 알뜰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음달 3일까지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전 매장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강강술래 멤버십 회원이 구이메뉴(정식류·해피아워 제외)를 시키면 10% 할인혜택을 준다. 또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게는 포인트 1000점을 무료로 적립해주며 냉면상품권(1매)도 함께 증정한다.

가족이나 연인·친구와 함께 캠핑이나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선 칠갑한우떡갈비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통등심돈가스·모짜렐라돈가스를 2세트 사면 1세트를 더 주는 '2+1 덤 증정' 행사도 함께 벌인다.

와인(카르멘 톨텐 멜롯) 1병을 시키면 결제 시 와인(카르멘 톨텐 카버네쇼비뇽) 1병을 무료로 증정하는 '1+1 로맨틱 와인 이벤트'를 벌인다.

인천 아시아게임을 맞아 우리 선수를 응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9월




30일까지 응원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 소박스(50g·10봉)는 3만6000원, 대박스(50g·20봉)는 7만원에 최대 42% 할인 판매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조로' 티켓과 도서출판 길벗의 '공감하는 능력'과 '제프스터디 영어명언 100강' 도서를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 불황여파에 '다기능' 패션 뜬다

## 목걸이 되는 팔찌·탈부착 와펜 장식 등 한 가지로 다양하게 멋내는 아이템 인기

경기 불황의 여파로 '다기능' 패션이 뜨고 있다. 한 가지 제품으로 상황과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멀티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패션 전문가들은 목걸이나 팔찌가 되는 주얼리, 와펜을 떼었다 붙였다하는 티셔츠 등이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모자 멀티숍 햇츠온에서는 모자의 챙을 구부렸다 펼 수 있는 신기술인 '폴딩캡'을 적용한 스냅백을 선보였다.

햇츠온 관계자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을 땐 모자 챙을 내려 스냅백으로 활용하고, 평소엔 챙을 올려 바이크캡으로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얼리 업계에서도 다기능 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스와로브스키가 선보인 '스타더스트 브레이슬릿'은 스타일에 맞게 목걸이나 팔찌 등 두 가지로 착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1460개의 크리스털로 이뤄져 있어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옮겨




놓은 듯 화려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색상은 핑크·골드·블루·블랙 등의 12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와펜을 자유자재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바닐라비의 '벨크로잇' 제품도 인기다.

일명 '찍찍이'라고 불리는 벨크로의 특성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으로 클러치·짐색·안대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레드 컬러의 입술·로고·레터링 등 다양한 패치 무늬가 위트를 더해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금강제화는 컬러감 있는 신발의 밑부분을 탈부착해 두 가지 느낌으로



연출 가능한 옥스퍼드화를 내놨다.

밑창 디테일을 제거하면 클래식한 슈트에 어울리는 비즈니스화가, 컬러 밑창을 적용하면 트렌디한 캐주얼룩에 어울리는 신발이 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90년 전통의 럭셔리 브랜드** 현대백화점그룹의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22일 영국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벨스타프(BELSTAFF)'를 선보였다. /한섬 제공



**이하늬, 팜므파탈 패션** 뉴욕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토리버치는 배우 이하늬와 함께 한 패션 화보를 22일 공개했다. 이하늬는 토리버치의 2014 가을·겨울 컬렉션 의상을 입고 지적이고 고혹적인 매력을 뽐냈다. 특히 그레이 컬러 스웨터, 실버 플리츠 스커트, 니 하이 부츠 등을 매치해 자유로운 보헤미안 감성이 돋보이는 가을 룩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토리버치 제공

## 패션·뷰티업계 '페스티벌' 마케팅

### 나들이철 '축제'로 소비자와 소통 나서

뷰티·패션업계가 야외활동이 잦은 가을철을 맞아 '페스티벌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주요 브랜드들은 직접 축제를 개최하거나 유명 페스티벌의 티켓을 선물로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비비크림 브랜드 한스킨은 2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다음 달 4~5일에 열리는 '자라섬 국제재즈 페스티벌' 티켓을 증정한다.




한스킨 홈페이지에서 신제품 '바이오 오리진 디앰플 세럼' 제품 상세 소개 페이지를 자신의 SNS(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해당 URL을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남긴 고객 중 10명을 선정해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티켓(1인 2매)을 선물한다. SNS 공유 횟수가 많을수록 이벤트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보다 앞서 SPA브랜드 탑텐(TOPTEN)은 일렉트로닉뮤직 페스티벌인 '2014 글로벌 개더링 코리아'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탑텐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TOPTEN_OFFICIAL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화면을 캡쳐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응모자 중 10명에게 글로벌 개더링 코리아 티켓을 제공했다.

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페스티벌을 직접 개최하는 업체도 눈길을 끈다.

코베아는 10월 18~19일까지 총 200가족(4인가족기준)을 선정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캠핑시티에서 '코베아 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코베아는 캐리커처·페이스페인팅·요가·장기자랑 등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행사 첫날 저녁에는 인기 그룹 울랄라세션의 특별한 콘서트와 불꽃놀이를 비롯해 시트로엥과 함께하는 드라이빙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는 코베아 텐트와 타프를 소지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전국 코베아 및 바우데 대리점에서 응모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 "젊게 사는 '동안 미인' 모여라"

### '자인 동안 선발대회'

코리아나화장품의 프리미엄한방브랜드 자인은 '제4회 자인 동안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이에 비해 동안 외모를 지닌 여성은 물론 몸과 마음 모두 젊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30~60대 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12일까지 코리아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프로필과 사진, 동안 비법 등을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온라인 투표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 11월 5일 시




상식을 진행한다.

최강 동안으로 뽑힌 1명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자인 제품과 100만원의 상금을, 2·3등 3명에게는 100만~200만원 상당의 자인 제품을 증정한다. 특히 최종 우승자 4명에게는 코리아나 자인의 독자 모델로 1여 년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지원기자

## 거칠어진 손 촉촉하게~

### 기능성 핸드크림 봇물

뷰티 브랜드들이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기능성 핸드크림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시즌 신상 제품은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리페어 기능은 물론 주름 개선·미백 효과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A24(에이이십사)가 선보인 '프리미엄 울트라 힐링 핸드크림'은 알로에베라를 주원료로 식물성 오일만 사용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영양공급과 보습에 뛰어난 시어버터가 20% 함유돼 거칠어진 손을 촉촉



하게 가꿔준다.

더마비는 미백 케어가 가능한 '스킨 릴리프 핸드 크림'과 탄력케어·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너리쉬먼트 핸드 크림' 등 2종을 출시했다.

뉴트로지나의 '너리싱 노르딕 베리 핸드 크림'은 뉴트로지나 노르웨이전 포뮬러와 비타민 C가 결합해 24시간 영양과 보습을 선사한다.

아벤느는 '시칼파트 크렘 멩(시칼파트 핸드 크림)'을 선보였다. 트고 갈라진 손의 빠른 회복을 돕고 마치 글러브를 낀 것처럼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끈적이지 않고 빠르게 흡수돼 바른 직후 손을 사용해도 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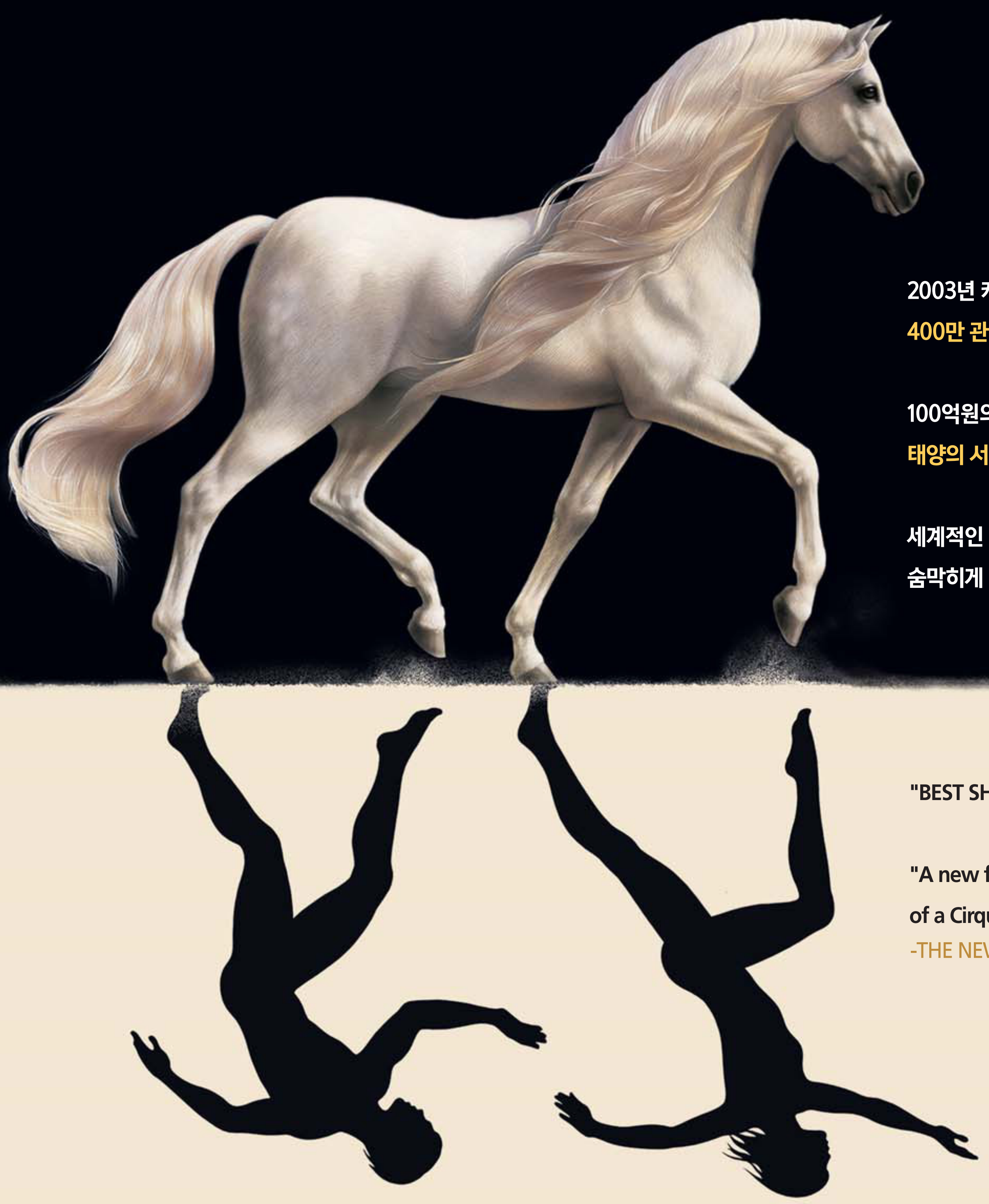
네이처리퍼블릭은 시어버터와 알로에 성분을 함유한 '핸드 앤 네이처 핸드크림' 18종을 내놨다. 시어버터 성분을 각각 5%와 20%를 함유한 수분촉촉 타입과 고보습 타입으로 선보여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박지원기자

# Cavalia

## 지상 최대의 아트서커스 카발리아

A Magical Encounter Between Human and Horse



2003년 캐나다 초연을 시작으로 전세계 52개 도시
400만 관객을 매료시킨 최고의 흥행공연

100억원의 제작비 초대형 공연장 화이트 빅탑씨어터
태양의 서커스 제작진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대작

세계적인 명마 50마리와 33명의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승마발레

"BEST SHOW EVER" - Larry King, CNN

"A new fairy tale-like show from the imagination of a Cirque du Soleil co-founder"
-THE NEW YORK TIMES

**티켓오픈
9월 22일**

2014년 11월 5일(수) Grand Open 잠실종합운동장 화이트빅탑씨어터
예매 | 인터파크, 옥션티켓 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www.cavalia.co.kr

주최 · 주관 | C-Live, ㈜솔트이노베이션 홍보마케팅 | Story P

# 장 면역력, 유산균으로 다시 찾자!



###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효과적

면역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면역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산균이 활동하는 장 관리가 절실해졌다.

**◆비타민, 장내 유산균 증식 도와**

신체기관 중 장은 주로 음식물의 소화·흡수가 이뤄지는 소화기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은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기관 중 하나로 장에는 면역세포의 70% 정도가 존재한다. 또 장 속에는 약 100종에 달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며 그 균형 상태에 따라 장 건강과 면역력이 결정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이 부족할 때, 혹은 불규칙적인 식습관이 반복될 때는 유해균이 강하게 발현된다. 유해균들이 장 점막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장 운동에 문제가 생겨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변비가 생긴다. 즉 유해균으로 장 건강이 악화되며 이는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

장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해균의 발현을 막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유산균이다. 유익균의 지원군 역할을 하는 유산균이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산균을 섭취해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영양소 중 비타민C는 장내 유산균을 증식해 주는 효과가 있다.

신선한 채소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신진대사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과 영양소를 순수 식품에서 얻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색깔의 채소·과일을 하루 세 번 챙겨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채소를 꾸준히 챙기는 것은 쉽지 않고 과중한 업무와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하루에 필요한 적정량의 영양소와 비타민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합성 비타민보다는 천연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식물영양소 등 어떤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신뢰를 얻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관광공사, '한식 홍보 포스터' 선정

### 전통 상차림·비빔밥 담아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한식 홍보 포스터'가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의 최우수 관광 포스터로 선정돼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PATA Gold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PA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관광 협력기구로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광고, 포스터 등 25개 부문에서 최우수 결과물을 1점씩 선정해 Gold Award를 시상하고 있다.

관광공사에서 제작한 포스터는 우리의 전통 상차림과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정갈하게 담아내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수라상에 오르던 신선로와 구절판, 산적구이 등이 클로즈업된 이미지가 어우러져 한국 음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황재용기자

## 31회 적십자 바자회 10월 2일 열어

### 90여개 부스 마련…다양한 상품 판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적십자 바자회가 오는 10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 김윤희·사진)가 주관하는 행사로 정부부처 국무위원·차관부인·금융기관장과 정부투자기관장 부인·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90여개 판매 부스가 마련된다.

특히 15개국 외교사절부인들이 참여해 각 나라의 전통 민예품 등을 판매하며, 의류·백화점 기증품·화장품·우리농산물 등을 시중가 대비 40~8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수익금은 전액 조손가정·홀몸어르신·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돕기에 사용된다. /김수정기자 ksj0215@

## 최경규 교수, 장관상 수상

### '치매 극복의 날' 맞아 예방과 인식 개선 공로



최경규(사진)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가 최근 서울 SETEC 컨벤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 기념 행사에서 치매 극복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 대한신경과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 교수는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서울시 양천구치매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대한치매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치매 진단과 치료 기법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치매 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 환자 돌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황재용기자



## 설레는 여행, 알뜰하고 알차게

### '가을 관광주간' 맞아 할인 정보 소개



'가을 관광주간(9월 25일~10월 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비용을 줄여 알뜰하지만 만족도는 한층 높일 수 있는 여행 노하우를 소개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가을 관광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가을 낭만여행과 체험여행, 기차여행 등 다양한 테마별 여행지와 함께 지역별 할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할인 혜택 코너에서는 전국 약 3700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숙박과 교통은 물론 식당·쇼핑·공연 등 범위도 다양하다.

여행을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열차를 증편 운행하며 정기열차와 관광열차 운임이 주중 20~30% 할인된다. 금호고속과 전남지역의 '남도한바퀴' 순환버스, 각 도시의 시티투어 버스도 할인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베네키아 호텔을 포함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산롯데호텔 등 유명 콘도와 호텔 500여개 업체가 10~60% 할인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강릉 초당두부 거리, 포항 과메기물회 거리 등 음식 테마거리와 지역 맛집 1607개 업체도 할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주간에는 각 지역별로 다채로운 향토 축제와 문화 행사도 이어지며 홈페이지에서는 푸짐한 경품이 증정되는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도 실시된다. /황재용기자

# ‘공대 아름이’ 홍인영의 터닝포인트



## KBS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신세영 역

배우 홍인영(29)이 KBS2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에서 악역에 도전한다. 올해 데뷔 13년차지만 ‘공대 아름이’로 더 유명하다. 한 이동통신사 광고에서 “아름이”를 외치는 공대 남학생들 속 돋보이는 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2009년 KBS2 ‘천추태후’로 연기를 시작한 그는 SBS ‘당돌한 여자’(2010), KBS1 ‘근초고왕’(2011), KBS1 ‘대왕의 꿈’(2012)에 출연했다. ‘일편단심 민들레’에서 이기적인 신세영 역을 연기한다. 비중 있는 악역을 처음 맡은 데 대해 “터닝포인트”라며 “잘 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KBS TV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 생애 첫 비중있는 악역
### 미니시리즈 도전하고 싶어
### 4차원 성격… 장보리·천송이 캐릭터 탐나

**◆ 신세영은 왜 이기적인 인물이 됐나.**

세영이는 부잣집에 입양된 친구다. 22일 21회에 고등학생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어릴 적 친구들에게 치부를 감추고 싶어한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버림받기 싫으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인물이다. 세영은 원래 착하다. 특히 어릴 때부터 믿고 따르던 신태오(윤선우) 오빠에겐 살갑게 대한다. 나중에 민들레(김가은)가 태오를 좋아하게 되면서 세영은 더 악랄하게 변한다. 복합적인 감정 연기를 해야 하는 어려운 역할이고 첫 주연이다 보니 부담이 크다. 또 차가워 보이는 인상과 달리 착한 구석이 있어서 솔직히 역할을 소화하는 게 걱정이다. 신창석 감독이 ‘왔다 장보리’의 이유리 선배를 예로 들어줬다. ‘네! 열심히 할게요’라고 답하긴 했는데 많이 노력해야 한다.

**◆ 시대극이다. 낯설거나 어려운 대사가 있나.**

현대적인 얼굴이 의상과 가발, 화장으로 커버돼 놀랐다. 낯선 건 세라복을 입고 삐삐머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신세영은 아양을 떠는 듯한 표정, 말투를 지니고 있다. 출연진에게 미리 ‘토 나와도 참으라고’ 당부해뒀다.

**◆ 도시적인 느낌이 강한 얼굴인데 시대극에 캐스팅됐다.**

‘일편단심 민들레’ 감독님과는 ‘천추태후’ ‘대왕의 꿈’으로 인연을 맺었다. 운인지 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디션에서 연기를 못 했으면 세영 역을 맡지 못했을 것이다. 감독님이 ‘KBS TV 소설 자체가 대사량이 많다’며 ‘건강 관리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보약을 먹고 있다. 시대극은 긴 호흡으로 진행되니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다. 그래도 ‘일편…’을 통해 배우 홍인영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다. 첫 주연이다 보니 지인들도 많이 응원해줘서 책임감을 느낀다.

**◆ 이번 작품을 통해 미니시리즈 출연을 기대해 본다.**

미니시리즈 하고 싶다. 최근 tvN ‘갑동이’에서 기자로 잠깐 출연하긴 했었다. 연기는 죽을 때까지 할 거고 ‘일편…’을 잘 해서 착착 올라가고 싶다.

**◆ 앞선 20회를 아역이 채웠다. 아역들의 연기력이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부담이 많다. 대사도 많은데 똑 부러지게 잘하고 섬세한 행동을 다 계산하면서 연기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몇몇 출연진끼리 촬영장을 구경갔었는데 스태프들이 ‘아역들이 연기를 잘하니까 성인 연기자들은 긴장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아역이 연기하는 걸 보고 그 감정선과 처한 환경을 이해하면서 바통을 잘 잇고 싶다.

**◆ 롤모델이 故 장진영이다.**

말이 필요 없는 배우다. 연기할 때 장진영 선배의 자신감은 아무나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전도연·이미연·김희애를 보면 당당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 최근 탐났던 배역이 있었나.**

내 실제 성격은 4차원이다. ‘왔다 장보리’의 장보리나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처럼 활발하고 천방지축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 좋아하는 연예인은?**

서인국이 눈에 띈다. 연기와 노래를 모두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tvN 드라마 ‘고교처세왕’에선 귀엽고 ‘주군의 태양’에선 소지섭·공효진 사이에서 존재감을 내는 걸 보고 놀랐다. 배울 점을 많이 갖고 있는 연예인이다.

**◆ 톱스타와 광고를 많이 찍었다.**

행복하다. 특히 원빈은 마네킹이다. 나보다 얼굴이 작고 예쁘니까 남자인데도 질투가 났다. 사진 작가가 손을 잡으라고 하는데 떨렸다. 또 찍고 싶다. (웃음)

**◆ 본명보다 ‘공대 아름이’가 더 유명하다. 이제 이미지를 벗고 싶나.**

아름이가 좋다. 할머니가 돼서도 아름이로 불리고 싶다. 한때는 홍인영을 알아주길 바랐는데 이젠 아름이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라운드테이블)·디자인/최송이

## 로이킴 정규 2집 '홈'으로 컴백

### 한층 더 깊어진 감성으로 가을 노래

가수 로이킴(사진)이 다음달 정규 2집 '홈'으로 약 1년 4개월 만에 컴백한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 제목은 '홈'으로 로이킴은 한층 더 성숙해진 감성으로 노래한다. 지난해 '봄봄봄'과 '러브 러브 러브'로 큰 사랑을 받았던 로이킴은 1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인 2집 발매를 앞두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완료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번 앨범은 로이킴의 정규 1집 '러브 러브 러브'를 프로듀싱 했던 MBC '나는 가수다'의 음악 감독 정지찬이 다시 한 번 맡았다.

로이킴의 소속사 CJ E&M 음악사업부문 관계자는 "이번 정규 2집은 로이킴의 성장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앨범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많은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킴은 이번 컴백과 함께 다음달 25~26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을 시작으로 11월 한달 동안 대구·대전·부산·창원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단독 콘서트 '2014 로이킴 라이브 투어 홈'을 개최한다. /김지민기자





왼쪽부터 오병상 JTBC 보도총괄,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겸 앵커, 김소현 앵커. /JTBC 제공



## "뉴스의 마지막은 품위"

###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 "정통 저널리즘 추구할 것"

JTBC '뉴스9'이 100분짜리 대형 프로그램 '뉴스룸'으로 새단장했다.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겸 앵커와 오병상 보도총괄, 김소현 앵커는 22일 서울 중구 JTBC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감과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를 전할 각오를 밝혔다.

손석희 앵커는 "'뉴스9'은 지난 1년 동안 방향성에 있어 자기역할을 충분히 했다. 최대한 노력했고 1년 지난 시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단순히 시간대를 옮기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역량과 기반은 만족스럽지 않으나 새로운 도전으로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뉴스룸'의 출발을 알렸다.

'뉴스룸'은 100분에 걸쳐 총 2부로 짜여진다. 1부에서 그 날의 뉴스를 종합한다면 2부에서는 중요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게 된다. '어려운 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코너가 버무려져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전략이다. 2부 편집은 좀 더 자유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 앵커는 "1주일에 2번 정도 탐사프로그램이 들어가고 '팩트 체크' 코너도 준비돼 있다. 시청자가 궁금해 하는 사안, 정치인이든 뭐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다룰 것"이라며 "팩트 체크의 대상은 의미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10분이 넘는 호흡이 긴 인터뷰도 2부에서는 가능하다. 정말 중요한 사안이면 그보다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때론 토론도 할 수 있다. 2부 편집은 자유롭게 갈 생각"이라고 뉴스룸의 윤곽을 드러냈다.

시청자들의 JTBC 뉴스 보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손 앵커는 "추구하는 바는 정통 저널리즘, 이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다. 교과서에 나와있는 정통 저널리즘,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틀리면 그게 왜 교과서인가요?"라며 강조했다.

끝으로 '뉴스룸'의 성공 요인은 '팩트'임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손 앵커는 "팩트가 중요하다. 또 가치관에 있어 공정하게 나가야 한다.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균형을 찾고 마지막은 품위다"며 "지금까지의 JTBC 뉴스도 품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팩트·공정·균형·품위 이 네 가지를 갖고 간다"고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 손승연 한국 대표로 '렛잇고' 열창

### '디즈니 인 콘서트' 스페셜 게스트 참석

가수 손승연이 한국 대표로 '렛잇고'를 열창했다.

손승연은 지난 21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2014 크레디아 파크콘서트-디즈니 인 콘서트'(이하 '디즈니 인 콘서트')에서 디즈니의 인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곡 '렛 잇 고'를 불렀다. 손승연은 한국 대표이자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해 8000여명 관객 앞에 섰다.

이날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등장한 손승연은 여유 있는 무대 매너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렛잇고'를 열창해 객석의 호응을 얻었다. 그는 이후 줄리아나 한센·휘트니 클레어 카프만·앤드류 존슨·아론 필립스 등과 피날레 곡 '이츠 어 스몰 월드'를 함께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손승연은 '렛잇고'를 부른 영상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해 일주일 만에 조회수 350만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영상은 미국 매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가 선정한 전 세계 '렛잇고' 커버 영상 톱10과 미국 연예 사이트 라이언 시크레스트닷 컴이 선정한 '렛잇고' 커버 톱6에 오르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모았다. '디즈니 인 콘서트'의 총괄 프로듀서인 시어도어 리켓은 손승연의 영상을 본 후 "놀라운 음색"이라고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승연은 지난 2012년 엠넷 '보이스코리아' 시즌1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가요계에 데뷔, '미친 게 아니라구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매일 다른 눈물이', '다시 너를' 등의 곡들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민기자

## 문준영-소속사 싸움 사과 매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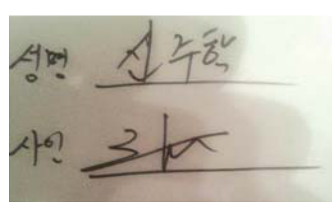
### 논란 하루 만에 일단락… 의문의 서명 문서 공개



소속사 스타제국 신주학 대표를 공개비난한 제국의 아이들 리더 문준영(사진)이 공개 사과했다.

문준영은 22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조금 전 대표님과 대화를 마쳤고 제 진심이 전해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해소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의 진심에 귀를 기울여 주고 배려해준 저희 대표님께 감사를 표한다"며 "팬과 대중에게 혼나는 사장님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일 치르고 나니까 초라하다. 보기 좋게 저랑 사장님만 집안 싸움 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준영은 신 대표와 자신의 서명이 적힌 문서 이미지를 일부 공개하며 "오늘 사장님은 저희를 지켜준 것이고 제 말을 들어준 것"이라며 "(서명) 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문준영이 공개한 신주학 스타제국 대표와 문준영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 일부. /문준영 트위터

우리만 알고 가겠다"라고 밝혔다.

스타제국 측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문준영 군과 제국의 아이들을 많은 팬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문준영은 자신의 트위터에 "리더라는 이유로 제국의 아이들 대표로 신주학 사장에게 빰을 맞았다.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다쳤을 때 2년 동안 정산이 없었다. (수입이) 0원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아홉 명 아들이 코 묻혀가며, 피 묻혀가며 일해 온 수익·자금·피 같은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라"며 소속사를 공개 비난했다. 문준영은 지난 2012년 새 앨범 홍보를 위해 출연했던 방송에서 다리 부상을 입은 후 약 2년 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THE K FESTIVAL
2014.OCT.3-4th @인천송도달빛축제공원
LINE UP
10.3.FRI.
NEW
블락비
BLOCK B
데이브레이크
DAYBREAK
NEW
BOYS REPUBLIC
소년공화국
술탄오브더디스코
SULTAN OF THE DISCO
NEW
언터쳐블
UNTOUCHABLE
정준일
JUNG JUN IL
제이레빗
J RABBIT
쏜애플
THORNAPPLE
NEW
블래스트
BLAST
낭만유랑악단
NANGMAN BAND
10.4.SAT.
비스트
BEAST
NEW
B.A.P
비에이피
포미닛
4MINUTE
10cm
십센치
G.NA
지나
딕펑스
DICKPUNKS
솔루션스
THE SOLUTIONS
몽니
MONNI
옥상달빛
OKDAL
NEW
호소
HOSO
페이퍼백
PAPERBAG
10% 티켓 할인판매
8월 26일 – 9월14일
주최, 주관 인천도시공사 Incheon Development & Tourism Corporation
주관 INNOCEAN WORLDWIDE
협찬 HYUNDAI INDEED EIGHT
후원 ifez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주관 미디어 경인일보
티켓구매 INTERPARK Ticket
www.thekfestival.co.kr

# 19금 영화로 꿈 좇는 청춘들

## 윤계상·고준희 '레드카펫'서 에로영화 감독·배우 변신



22일 오전 11시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레드카펫'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오정세, 윤계상, 박범수 감독, 배우 고준희, 황찬성, 조달환이 포토타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윤계상, 고준희가 에로영화 전문 감독과 아역스타 출신 스타 여배우로 스크린을 찾는다. 두 사람은 영화 '레드카펫'(감독 박범수)에서 주인공 정우와 은수 역을 맡아 로맨스 연기를 펼쳤다.

22일 오전 11시 CGV 압구정에서 열린 '레드카펫' 제작보고회에는 박범수 감독과 출연 배우 윤계상, 고준희, 오정세, 조달환, 황찬성이 참석해 영화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줬다.

윤계상에게 '레드카펫'은 '풍산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영화다. 이번 작품에서는 경력 10년차를 자랑하는 에로영화 전문 감독 정우를 연기했다.

윤계상은 "흔들리는 청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꿈을 좇는 이야기라 매력적이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최근 극장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긴 어게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19금 소재이기는 하지만 따뜻하고 꾸미지 않은 느낌이 있다는 점에서 '비긴 어게인'과 우리 영화는 굉장히 닮았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고준희는 지난해 개봉한 '결혼전야' 이후 또 한 편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극장가를 찾게 됐다. 이번 영화에서는 아역 출신 톱 배우 은수 역을 맡았다. 정우를 비롯한 일명 '19금 어벤져스 사단'을 만나 인생이 꼬이게 되는 인물이다.

"실제 성격은 털털하고 남자 같은 면도 많다"는 고준희는 "아직 영화를 못 봤지만 극중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다. 실제 성격과는 상반된 모습이 있다"고 밝혔다.

코믹 연기로는 충무로에서 소문난 배우들과 함께 한 만큼 촬영 현장은 유쾌했다. 고준희는 "배우들 다 분위기 메이커라서 웃지 않아도 되는 신에서도 자꾸 웃어서 NG가 났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기보다 촬영 자체가 재밌었다"고 전했다.

영화는 실제 성인영화 감독으로 10년 동안 활동한 경험이 있는 박범수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박 감독은 "200편 가까이 영화를 찍었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부모님과 같이 볼 수 있는 작품이 없었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소재 때문에 영화에 편견과 오해가 있겠지만 영화를 보고나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청춘들에게 지금도 잘 하고 있으니 겁먹지 말고 계속 잘 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레드카펫'은 다음달 23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충무로 새로운 이야기꾼 등장

## 김태용 감독 '거인'으로 장편 데뷔

국내 최연소 칸영화제 입성의 기록을 세운 신인 김태용(사진) 감독이 첫 장편영화 '거인'으로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 중이다.

김태용 감독은 지난 2010년 23세 나이에 만든 단편영화 '얼어붙은 땅'으로 칸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부문에 초청돼 영화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당시 칸영화제 측은 "욕망과 윤리의 경계에 선 소년의 갈등이 날 것 그대로 살아난 작품"이라고 극찬을 보냈다.

또한 류승완 감독이 제작한 '인생은 새옹지마', 김조광수 감독과 함께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 '원나잇 온리',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올 가을 개봉을 앞둔 '서울연애' 등에 참여하며 충무로의 새로운 이야기꾼으로 주목받고 있다.

첫 장편영화 '거인'은 성장통보다 인생의 고통을 먼저 배운 17세 소년 영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태용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김 감독은 "촬영이 끝난 뒤에도 영재라는 인물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며 "서른 살 이전에 나 자신의 이야기인 '거인'을 만드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했다"고 작품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거인'은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에 초청돼 국내 관객들과 처음으로 만난다. 올 하반기 중에는 극장에서 정식으로 개봉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 강지환 2년 만의 스크린 컴백



## 느와르 '태양을 쏴라' 12월 개봉

배우 강지환(사진)이 오는 12월 개봉하는 영화 '태양을 쏴라'(가제)로 2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한다.

'태양을 쏴라'는 세상의 마지막까지 떠밀려와 LA에서 우연히 조직의 보스를 구하게 된 한 남자가 그곳에서 매혹적인 목소리를 지닌 여인 사라를 만나면서 엇갈린 운명 속에 놓이게 된다는 내용의 느와르 영화다.

최근 드라마 '빅맨'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강지환은 '태양을 쏴라'에서 평범한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남자 존을 연기했다. 기존의 깔끔한 이미지를 벗고 남성스러운 매력을 선보였다.

'올드보이' '경주'에 출연한 윤진서는 재즈 보컬로 존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인 사라를 연기했다. 불법 체류자로 존의 둘도 없는 친구인 첸 역은 '파수꾼' '전설의 주먹'으로 충무로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 박정민이 맡았다.

/장병호기자

# 이윤지 가톨릭영화제 홍보대사

## "사람들 삶 채우는 영화제 되었으면…"



배우 이윤지(사진)가 제1회 가톨릭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2일 영화제 측은 "첫 번째로 개최되는 가톨릭영화제 홍보대사로 배우 이윤지와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직을 수락해줘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윤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번 영화제가 성황리에 치러지길 바란다. 영화를 통해 가톨릭 신앙이 관객들에게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을 채우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톨릭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분열되고 상처 입은 관계를 조명하고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며 영성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개최되는 영화제다. 국내외 장편·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포함해 총 30여 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다음달 30일부터 11월2일까지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개최된다.

/장병호기자

# 노후건강을 위한 마지막 기회, 갱년기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노후 대책 중 중요한 것은 건강자산을 쌓는 일이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평균 49세) 몸의 거의 모든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 여성호르몬 분비가 멈추기 때문이다. 여성호르몬은 단순히 생식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골밀도, 혈관건강, 뇌 건강, 신진대사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깊게 관여한다.

폐경 이전까지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호르몬이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을 겪게 되고, 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 때가 되면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건강이 좋아지기가 힘들며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폐경 이후의 건강이란 그 전까지 쌓아둔 것을 소모하며 살아가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전까지 건강수준, 즉 건강자산을 높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갱년기는 폐경이 되기 전 약 5년~6년의 기간을 뜻한다. 여성 노년이 시작되기 직전이자, 건강자산을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갱년기의 증세들은 마지막을 알리는 알람과도 같다. 물론 갱년기에 건강자산을 올리는 건 20~30대와는 조금 다르며, 특히 갱년기 증상으로 운동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증상을 다스리면서 건강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한방에서는 이를 위해 400년 전부터 다양한 본초식물을 이용해 왔다.

백수오, 당귀, 쑥, 연근즙 등이 갱년기에 좋은 여성 본초들이다. 백수오나 쑥은 자궁부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며, 당귀는 피를 새롭게 만들고 맑게 한다. 연근즙은 갱년기 증상 특유의 열과 두근거림을 가라앉히고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 차로 마셔도 좋고 음식에 넣어도 좋다. 모두 꾸준히 먹어주면 좋은 것들이다.

갱년기 이후, 적어도 30년을 보내야 한다. 누군가는 높은 건강자산을 바탕으로 '젊은이'처럼 살아가고 누구는 건강자산을 제대로 쌓아두지 못해 힘든 30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늙음'의 상징처럼 보였던 갱년기가 노년 인생의 출발선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잊지 말자.

/김소형 본초학 박사(김소형 한의원)

#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 갱년기 건강 적신호, 노후는 어떨지…
## 체질 맞는 음식 먹고 걷기운동 좋아

**Q** 우보호시 여자 61년 10월 19일 음력 오후6시 전후

앞서 딸에 대해 상담 드렸던 사람입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마음을 비우고 딸이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준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즈음 제 건강이 건강 검진 결과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질 수치 등이 아주 높아서 과체중과 식생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니 여러 가지 건강에 적신호가 오네요. 매사에 의욕도 없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부부 사이도 좋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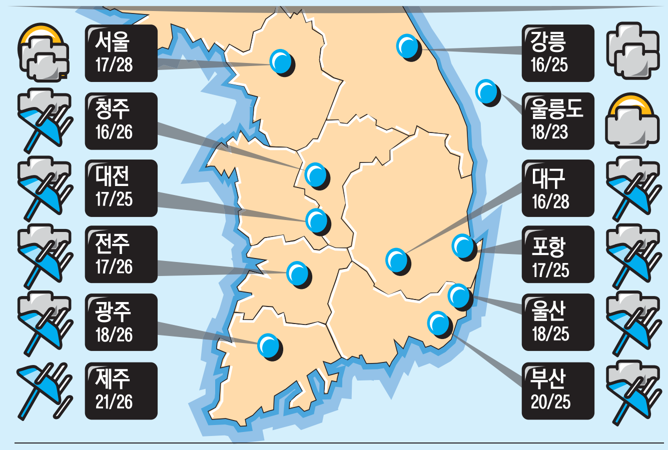
**A** 명리학 팔자에서 계수(癸水) 사주가 득령득지(得令得支:계절이 맞고 뿌리가 튼튼함)하고 사주뿌리에 수국(水局:물로 무리를 이룸)이니 총명하고 의지가 강(强)합니다. 강하다는 신강과 약하다는 신약을 따지는 것은 남자 사주는 신강 해야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쉽고 건강하여 좋지만 곤명(坤命:여자)에서는 너무 신강하면 조화가 안 되어 부부의 사이는 원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사례입니다. '망망대해'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나 정작 자신의 뜻은 펼치지 못하여 식구들에게 집착하다가 고독하여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있다'고 하였으나 갱년기의 적신호가 오는 것은 누구나 있는 일이지만 귀하의 체질상으로 소음인의 예민함과 태양인의 혼합형으로 피부가 건조함이 많고 약을 싫어하여 병원에서 약을 주어도 끝까지 복용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보약보다 나은 것인데 귀하가 육류를 싫어하면 태양인성 양명인이고 돼지고기를 잘 소화 한다면 소양성 양명입니다. 음식을 되도록이면 체질에 맞는 것을 취하는 것이 좋겠으며 특히 걷기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생각이 정리가 될 것인데 좀 전에 언급했듯이 부부자리가 간여지동(干與支同:천간과 지지가 같음)으로 비견(比肩:나와 같음)이 서로 어깨를 밀어대는 사주구조는 부부간의 생사이별이나 각거(各居)하게 되며 백호(白虎)와 같은 흉살이 겹치면 사별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계속 위기이므로 생각을 바꾸고 잘 넘기면 아기이기함은 없으나 각자가 자기실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므로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지는 마세요. 결국은 혼자에게 피해가 많아 더욱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됨을 유념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 날씨

9/23 火 일출시각 06:20 일몰시각 18: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환절기에는 감기를 비롯한 상기도 감염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과 6시간 이상의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로 몸의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4 | | 8 | | | | 1 | 2 |
| | | 1 | | 7 | 6 | | | |
| | 8 | | 3 | 1 | | | 9 | |
| 4 | | 6 | | | 3 | | | |
| 2 | | | | | | | | 3 |
| | | | 6 | | | 2 | | 5 |
| | 1 | | | 5 | 8 | | 3 | |
| | | | 2 | 3 | | 5 | | |
| 5 | 9 | | | | 4 | | 2 | |

| | | | | | | | | |
|---|---|---|---|---|---|---|---|---|
| 4 | | 2 | | | | 5 | | |
| 7 | | | 4 | | 1 | | | |
| | 1 | 9 | | 2 | 8 | | 4 | |
| 2 | | | | | | 1 | | |
| | 4 | 3 | | | | 7 | 2 | |
| | | 7 | | | | | | 3 |
| | 2 | | 1 | 7 | | 8 | 3 | |
| | | | 5 | | 2 | | | 7 |
| | | 5 | | | | 6 | | 2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3 | 4 | 7 | 8 | 9 | 5 | 6 | 1 | 2 |
| 9 | 2 | 1 | 4 | 7 | 6 | 3 | 5 | 8 |
| 6 | 8 | 5 | 3 | 1 | 2 | 7 | 9 | 4 |
| 4 | 5 | 6 | 1 | 2 | 3 | 9 | 8 | 7 |
| 2 | 7 | 8 | 5 | 4 | 9 | 1 | 6 | 3 |
| 1 | 3 | 9 | 6 | 8 | 7 | 2 | 4 | 5 |
| 7 | 1 | 2 | 9 | 5 | 8 | 4 | 3 | 6 |
| 8 | 6 | 4 | 2 | 3 | 1 | 5 | 7 | 9 |
| 5 | 9 | 3 | 7 | 6 | 4 | 8 | 2 | 1 |

| | | | | | | | | |
|---|---|---|---|---|---|---|---|---|
| 4 | 8 | 2 | 6 | 9 | 3 | 5 | 7 | 1 |
| 7 | 3 | 6 | 4 | 5 | 1 | 2 | 8 | 9 |
| 5 | 1 | 9 | 7 | 2 | 8 | 3 | 4 | 6 |
| 2 | 9 | 8 | 3 | 6 | 7 | 1 | 5 | 4 |
| 6 | 4 | 3 | 9 | 1 | 5 | 7 | 2 | 8 |
| 1 | 5 | 7 | 2 | 8 | 4 | 9 | 6 | 3 |
| 9 | 2 | 4 | 1 | 7 | 6 | 8 | 3 | 5 |
| 8 | 6 | 1 | 5 | 3 | 2 | 4 | 9 | 7 |
| 3 | 7 | 5 | 8 | 4 | 9 | 6 | 1 | 2 |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 신점[神占] 운세 9월 23일 (음 8월 30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기대한 일은 성사된다. **60년생** 생각의 균형 잡는데 신경 써라. **72년생**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승산이 있다. **84년생** 조직의 궂은일을 피하지 말라.

소 **49년생** 좋은 일은 마구 퍼트려라. **61년생** 궁합 잘 맞는 배우자 사랑스럽다. **73년생** 뜻밖의 변수가 있어도 계획대로 할 것. **85년생** 철없는 친구 때문에 끊는다.

호랑이 **50년생** 가이드라인은 지켜야 한다. **62년생** 마음을 편안히 갖도록 노력할 것. **74년생** 목돈이 들어갈 경사 생긴다. **86년생** 갈수록 흐릿해지는 첫사랑의 추억~.

토끼 **51년생** 굴종적 양보는 하지 말라. **63년생** 장외 눈치 보면 외화내빈이 된다. **75년생** 결단을 내릴 땐 과감하게 내려라. **87년생** 삶에 전환점이 될 일이 생긴다.

용 **52년생** 막혔던 길이 뚫린 격이다. **64년생** 등 따뜻하고 배부르는구나. **76년생** 엉뚱한 욕심 부리면 시간만 낭비한다. **88년생** 불가능한 일은 애초에 마음먹지 말라.

뱀 **53년생** 중요한 일은 사전협의 할 것. **65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지연된다. **77년생** 이권이 개입된 일에 동조하지 말라. **89년생** 이불 덮고 혼자서 웃을 일 생긴다.

말 **42년생** 내가 신중하면 상대는 자중지란에 빠진다. **54년생** 가시방석 자리는 버려라. **66년생** 삐끅 상하관계는 정상화된다. **78년생** 귀인을 만나 잠자던 야망이 꿈틀~.

양 **43년생** 성향이 다른 사람은 멀리하라. **55년생** 바라는 것이 많으면 지출도 늘어난다. **67년생** 가족과 원활한 소통 신경 써라. **79년생** 삶에 활력소 될 일이 생긴다.

원숭이 **44년생** 벼랑서 탈출한 격이다. **56년생** 남 헐뜯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68년생** 이웃과 정을 나눌 일이 생긴다. **80년생** 친구 도와주려다 망치지 않도록~.

닭 **45년생** 대사 추인은 보류하라. **57년생** 어려운 일은 고비는 넘긴다. **69년생** 말도 안 되는 허세 부리지 말라. **81년생** 친구가 미워도 돌직구는 자제해야 한다.

개 **46년생** 민감한 일은 피하는 게 좋다. **58년생** 주변 사람과 대화 많이 할 것. **70년생** 직장서 갈등은 해결이 된다. **82년생** 일처리를 잘해 똑소리난다는 칭찬 듣는다.

돼지 **47년생** 적당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라. **59년생** 기본에 충실해야 손해 없다. **71년생** 말이 없는 경쟁자나 동료를 주목할 것. **83년생** 물고기가 큰 강을 만난 격이다.

# 한국 야구 아시안게임 2연패 시동

## 태국에 15-0 콜드게임 승… 2이닝 퍼펙트 김광현 결승준비 끝


22일 인천 문학 야구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B조예선 한국과 태국의 경기에서 한국 선발 김광현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2연패를 향해 산뜻하게 첫 발을 내디뎠다.

야구 대표팀은 22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태국과 B조 예선리그 1차전에서 15-0, 5회 콜드게임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태국 선발 시하맛 위사루트의 시속 110㎞대의 느린 공을 두들겨 1회에만 8점을 뽑았다.

1회 무사 1, 2루에서 김현수의 우익선상 2루타로 선취점을 얻은 한국은 2사 2, 3루에서 나성범의 1루수 방면 내야 안타로 한 점을 더했다. 이후 볼넷으로 베이스를 채운 한국은 밀어내기 볼넷과 연속 사구로 3점을 더 얻었다.

태국은 투수를 칸잔다비숫 카몰판으로 교체했고, 손아섭의 평범한 뜬공을 낙구 지점 포착 실수로 놓쳐 2점을 더 내줬다. 또 3루수 실책으로 한국은 8번째 점수를 뽑았다.

칸잔다비숫은 시속 120㎞대의 느린 공을 던졌지만, 한국 선수들은 선발 투수보다 빠른 공에 좀처럼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3회에 공이 눈에 익자 박병호, 강정호, 나성범의 연속 2루타와 김민성의 좌전 적시타 등으로 4점을 더했다.

4회에는 1사 3루에서 김현수의 1타점 3루타, 박병호의 좌전 적시타, 2사 2루에서 나성범의 우중간 2루타로 콜드게임 요건인 15점째를 채웠다.

한국은 2이닝을 던진 선발 김광현을 비롯해 4회와 5회에 각각 등판한 이태양과 이재학이 모두 퍼펙트로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다. 반면 3회 마운드에 오른 유원상은 다소 몸이 덜 풀린 듯 안타 2개를 맞았다. 하지만 이날 승리투수로는 유원상이 기록되는 진기한 광경이 나왔다.

선발투수가 5이닝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후 등판한 선수 중 기록원이 판단하기에 승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투수에게 승리가 돌아간다. 이 때 피안타는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똑같이 한 이닝씩을 던진 유원상·이태양·이재학 중 가장 먼저 등판한 유원상에게 승리가 돌아갔다.

류중일 감독은 김광현에 대해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고, 힘을 80% 정도만 써 구속이 144㎞, 146㎞ 정도 나왔다"며 "다음 경기에서는 시속 150㎞ 이상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24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금메달의 최대 걸림돌인 대만과 예선리그 2차전을 벌인다. 류 감독은 대만전 선발로 양현종을 예고했고 필승조를 모두 대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은 22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홍콩과의 경기에서 7회, 12-0 콜드게임 승을 거뒀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자연미인들의 자유연기** 북한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선수들이 22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에서 고난도 연기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규정종목과 자유종목 합계 167.1247점을 얻어 중국(185.7221점)과 일본(181.7047점)에 이어 동메달을 땄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장연실 북한 감독은 북측에도 성형수술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우린 원래 그 얼굴이다"고 잘라 말했다. /뉴시스

# '맏언니' 정경미 감동 금메달

## 부상투혼 여자 유도 최초 AG 2연패

한국 여자 유도의 '맏언니' 정경미(29·하이원)가 북한의 설경(24)을 꺾고 한국 여자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세계랭킹 8위인 정경미는 22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78kg급 결승에서 설경을 상대로 지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동일 체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정경미는 이번 우승으로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 여자 선수가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한 것은 정경미가 처음이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정경미는 4강에서 만난 바툴가 문크흐투야(세계랭킹 28위)에게 경기 시작 1분 15초 만에 빗당겨치기로 절반을 빼앗으며 앞서갔다. 여세를 몰아 16초 뒤에 곁누르기로 한판승을 따내 가볍게 결승에 올랐다.


정경미가 22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78kg급 결승에서 북한의 설경을 꺾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설경 역시 8강에서 일본의 우메키 마미(세계랭킹 45위)를 안다리 후리기 절반으로 꺾은 뒤 준결승에서 중국의 장저후이(세계랭킹 41위)를 경기 시작 45초 만에 소매들어 허리채기 한판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정경미는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낀 설경을 상대로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쳤다. 경기시작 1분23초 만에 지도를 빼앗아 앞서나가다 경기 종료 1분12초를 남기고 지도 1개를 더 얻어냈다. 설경은 막판에 지도 1개를 따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한편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허리디스크가 정경미를 꾸준히 괴롭혀 왔다. 치료와 재활을 병행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통증을 참아내며 정경미는 대표팀 동료들과 훈련을 소화했다.

경기를 마친 정경미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며 "여기까지 끌어주신 코칭스태프에게 감사드린다"고 눈물의 소감을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 손완호·유연성 제대선물은 '병역면제'?

## 전역일에 배드민턴 단체 금메달 도전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

| 순위 | 국가 | 금 | 은 | 동 |
|---|---|---|---|---|
| 1 | 중국 | 26 | 14 | 18 |
| 2 | 한국 | 14 | 15 | 16 |
| 3 | 일본 | 13 | 13 | 16 |
| 4 | 몽골 | 3 | 3 | 6 |
| 5 | 북한 | 3 | 3 | 4 |

<22일 현재>

한국 남자 배드민턴의 손완호와 유연성이 전역 선물로 병역혜택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인천 계양구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손완호와 유연성은 이동근, 이용대 등과 함께 단체전 준결승에서 대만에 3-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들은 23일 배드민턴 남자 단체 세계 최강 중국과 금메달을 놓고 격돌한다. 중국은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한국과 결승에서 만나 모두 금메달을 가져간 바 있다. 한국은 2002년 부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1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손완호와 유연성은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결승전이 열리는 23일은 이들의 전역일이다. 이날 배드민턴 단체전 금메달을 딴다면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금메달은 더 없이 좋은 전역 선물이다. /유순호기자


배드민턴 단체전에 출전한 이용대와 유연성(오른쪽). /연합뉴스

# 박태환 수중전 2막 '금 물살' 가를까

## 자유형 200m 이어 400m서 쑨양·하기노와 대결… AG 3연패 도전



21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 200m 시상식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국의 박태환(동메달), 일본의 하기노 고스케(금메달), 중국의 쑨양(은메달). /연합뉴스

아시아 수영 최강자를 가리는 한·중·일 대결 2막이 열린다.

박태환(인천시청)과 쑨양(중국), 하기노 고스케(일본)가 23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400m 경기를 치른다.

21일 열린 자유형 200m 경기에서는 박태환과 쑨양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성 하기노 고스케의 역전 우승으로 끝났다.

외신들도 '하기노가 최대 라이벌인 박태환, 쑨양에게 쏠려 있던 관심을 가로챘다'고 표현할 만큼 예상 밖의 결과였다.

박태환은 소속팀의 연고 지역이자 자신의 이름을 딴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울리겠다는 목표 달성이 미뤄진 만큼 여느 때보다 굳은 결의로 이번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수상경력과 올 시즌 성적 등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박태환이 우위에 있다.

박태환은 2006년 도하 대회, 2010년 광저우 대회 자유형 400m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땄다. 더 나아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07년과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제패한 이 종목 세계 최강자다.

또 박태환은 지난달 훈련삼아 출전한 호주 팬퍼시픽선수권대회에서 올 시즌 세계랭킹 1위의 기록(3분43초15)을 세우며 변함없는 기량을 드러냈다. 하기노와 쑨양의 올 시즌 최고 기록은 각각 3분43초90와 3분45초12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다. 박태환과 쑨양은 이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에 번갈아 올랐다. 쑨양은 자유형 400m 아시아 최고 기록(3분40초14) 보유자다. 쑨양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이 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땄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디펜딩챔피언 박태환이 빠진 사이 자유형 400m에서 쑨양이 정상에 올랐다. 당시 하기노도 출전해 쑨양(3분41초59)에 3초 넘게 뒤진 성적(3분44초82)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하기노와 박태환은 지난달 팬퍼시픽선수권대회에서 만나 하기노가 1초41 뒤진 성적(3분44초56)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박태환과 쑨양은 예선에서부터 맞붙는다. 이들은 마지막 조인 3조에 함께 출전하고, 하기노는 예선 2조에서 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 원더스 해체 이유 돈이 아니라고요?

지난 8월 초 고양 원더스에 관해 뜻밖의 말을 들었다. 원더스 관계자들이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말이었다. 선수들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인 독립리그 구단이 도대체 얼마를 쓰길래 저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았다. 선수단이 50명 정도로 규모가 컸다. 여기에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고 김성근 감독의 연봉과 코치들 연봉도 보장해야 한다. 해외 전지훈련과 원정 비용도 수월치 않게 들어간다. 대략 연간 40억 원이라고 했다. 이 정도는 프로 2군과 맘먹는 운영비이다.

지난 2011년 일본의 독립리그 '스리애로우스(Three Arrows)'가 갑자기 해체를 선언했다. 이유는 재정난이었다. 관중과 스폰서 유치를 통해 8000만 엔을 연간 수입 목표로 삼았는데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선수들의 월봉은 15만 엔이다. 우리 돈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선수단 규모는 25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면 원더스는 많은 돈을 쓰는 구단이었다. 허민 구단주는 운영비를 개인 돈으로 충당했다. 만일 원더스가 원했던 퓨처스리그에 편입되면 허 구단주는 매년 그 이상의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 야구단 비용은 줄지 않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료 관중도 없다. TV 중계도 거의 없으니 광고도 붙지 않는다.

결국 매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원더스는 해체의 이유로 KBO의 약속파기, 기존 프로구단의 높은 장벽을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절대 운영비 문제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계가 분명한 원더스였다. /OSEN 야구전문기자

# 허미정 5년 만에 LPGA 정상

###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 누르고 우승컵

허미정(25·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5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허미정은 22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프래트빌의 로버트 트렌트 존스 골프트레일(파72)에서 열린 요코하마 타이어 LPGA 클래식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1개를 더해 6언더파 66타를 쳤다.

합계 21언더파 267타를 적어낸 허미정은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17언더파 271타)의 추격을 따돌리고 2009년 포틀랜드 클래식(당시 세이프웨이 클래식) 이후 5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라 레토(남아공)와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허미정은 전반에 2타를 줄였지만 4타를 줄이며 추격해온 루이스에 2타차로 쫓겼다.

하지만 11번홀(파4)에서 한타를 줄인 허미정은 13번홀(파3)에서 티샷을 홀 50㎝에 붙여 버디를 잡은 뒤 14번홀(파4)에서도 연속 버디를 잡아 루이스와의 격차를 3타로 벌리며 우승을 예감했다.

루이스가 13번홀 버디 이후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허미정은 16번홀(파3)에서도 1타를 줄여 4타차로 앞선 채 18번홀(파4)에 올라섰다.

마지막 홀 그린에서 버디 퍼트가 홀을 지나갔지만 허미정은 1.2m 거리의 파퍼트를 넣어 마무리했다.

허미정의 우승으로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은 6승을 합작했다. 교포 선수인 미셸 위(25)와 리디아 고(17)까지 합하면 10번째 우승이다.

LPGA 2부 투어를 거친 뒤 지난 2009년 1부 투어에 진출한 허미정은 첫해에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후에는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하다 루이스에 완승을 거두며 다시 한번 LPGA 투어 정상에 섰다.

/김학철기자 kimc0604@




2014 인천아시안게임
## 경기일정
23일 (화)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 **양궁** 계양아시아드 양궁경기장
  - 남자 컴파운드 · 여자 리커브 예선라운드(10시)
  - 남자 리커브 · 여자 컴파운드 예선라운드(14시30분)
- **배드민턴** 계양체육관
  - 남자부 단체전 결승(18시30분)
- **볼링** 안양호계체육관
  - 남자 개인전(9시)
- **사이클** 인천국제벨로드롬
  - 여자부 스프린트(10시) 남자부 옴니엄(10시20분)
  - 남자부 스프린트(16시18분)
- **펜싱** 고양체육관
  - 남자 에페 단체전 · 여자 사브르 단체전(9시)
- **체조** 남동체육관
  - 남자 개인종합 결승(14시30분)
  - 여자 개인종합 결승(18시)
- **하키** 선학하키경기장
  - 남자부 예선 한국-일본(19시)
- **유도** 도원체육관
  - 남녀 단체전(14시)
- **세팍타크로** 부천체육관
  - 팀 남자 예선 한국-태국(9시)
  - 팀 여자 예선 한국-태국(14시30분)
- **조정** 충주 탄금호 조정경기장
  - 남자 더블스컬 패자부활전(10시)
  - 남자 싱글스컬 패자부활전(10시20분)
  - 남자 경량급 쿼드러플스컬 패자부활전(10시30분)
  - 여자 쿼드러플스컬 패자부활전(10시40분)
- **사격** 옥련국제사격장 / 경기도종합사격장
  - 남자 10m 공기소총(9시) 남자 25m 속사권총 1일차(9시) / 여자 트랩 본선 및 결선(9시30분)
- **스쿼시** 열우물 스쿼시장
  - 여자 개인전 결승(12시) 남자 개인전 결승(13시)
  - 남자 단체전 1라운드(18시)
- **수영** 문학박태환수영장
  - 남자부 자유형 50m, 평영 200m, 자유형 400m(9시)
  - 여자부 배영 50m, 개인혼영 400m, 접영 100m, 계영 800m(9시)
- **테니스** 열우물테니스장
  - 남자부 단체전 준결승(10시) 남녀 단식, 혼합복식 1회전(10시)
- **배구** 송림체육관
  - 여자부 예선 한국-태국(19시30분)
- **역도** 송도 23호 근린공원
  - 여자 63kg급(16시)
- **우슈** 강화돌멘체육관
  - 남자부 태극검 투로 결승(9시) 태극권 투로 결승(14시)
  - 산타 4강(19시) 여자부 산타 4강(19시)
- **크리켓** 연희크리켓경기장
  - 여자 준준결승(9시30분)

연합뉴스


건전여행
함께 행복을 나누는 여행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우수여행상품' 이 궁금하면?
당황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여행정보센터